

창조와 진화 바로 알기

정동수 편저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창조와 진화 바로 알기

정동수 편저

1판 1쇄 / 2023년 5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정가 : 6,000원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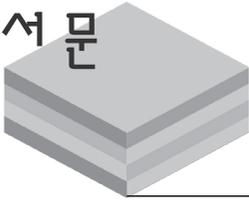


서 문	4
1. 진화론, 심각한 문제이다	6
2. 진화와 진화론의 폐해	12
3. 기원의 문제	24
4.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61
5. 지구의 나이	65
6. 창조와 진화는 둘 다 종교이다	71
7. 창세기 대 진화론	84
8. 창조의 증거들	105
9. 한국 창조 과학회	134

그때에 레위 사람들인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니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세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과 찬양보다 높이 오른 그 이름을 찬송할지이다.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느9:5-6).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3, 6).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 대 인본주의’(Christianity vs. Humanism)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본질이 매우 근본적인 문제, 즉 ‘창조 대 진화’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쟁터를 잘 알아야 하듯이 ‘기독교 대 인본주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창조 대 진화’라는 전쟁터의 참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본주의 진화론이라는 도구를 통한 마귀의 계락을 잘 이해하고 쳐부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 전도 대상은 성경이 이방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진화론에 몰들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성경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더더욱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분을 자기들의 신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이니 회개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므로 그는 그들에게 구약의 창조 기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같은 이방 도시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는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선포하였습니다(행17:22-31). 창조와 창조자 그리고 창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2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23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 주리라. ²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²⁵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²⁶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으니 ²⁷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²⁸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²⁹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³⁰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³¹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17:22-31).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믿습니다. 또한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창세기의 6일 창조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접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대수 사람들이 학교에서 10년 이상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창세기 1-12장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창조는 크리스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지 못하면 사실 부활과 휴거를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기초인 창조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인본주의 발언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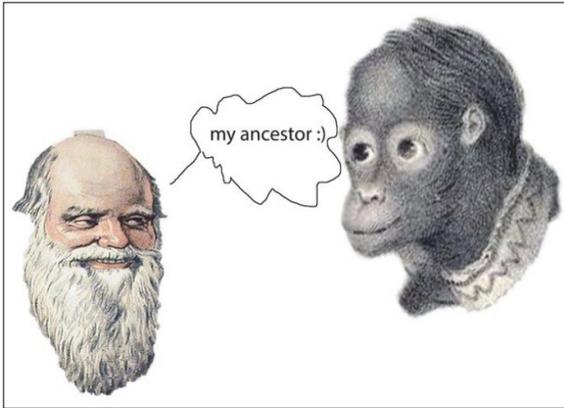
이 책자에서는 현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진화론/인본주의 체계의 본질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주는 증거와 창세기 문제 그리고 창조의 과학적 사실들과 진화론의 거짓 주장 등을 제시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과 이런 책자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14-16).

진화론, 심각한 문제이다!



Evolution Is A Serious Problem



원숭이를 보고 '내 조상'이라고 말하는 다윈

웃기는 그림이지만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진화론에 세뇌되어 이렇게 믿고 있다.

한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학교에 갔다 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듣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과연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숭이를 만드셨고 그것이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 사람이 되었던 말인가요? 대학교에서 진로와 인생 상담을 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조상이 원숭이일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나는 누구인가?(Who am I?)
2. 나는 어디서 왔는가?(Where did I come from?)
3.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Why am I here?)
4.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Where am I going when I die?)

짐승들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창조자가 설계해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철학의 주제 역시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인간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빅뱅에 의해 흙덩어리에서 나와 아메바로 변했다가 무수한 진화 과정을 거쳐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과연 무슨 목표가 있을까요? 그들은 왜 살까요? 그들은 짐승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한편 고차원의 창조자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설계해서 이 땅에 내놓았다고 믿는다면 설계자의 설계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기 바랍니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흙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호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진화론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인간 사회 전체를 지배해 왔고 특히 교육 기관들은 진화론 지배의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방송 매체들은 TV 프로그램과 진화론의 관점에 충실한 신문의 사실들을 통해 마치 유기체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선전해

왔습니다. 대개 이 같은 중독 현상은 뚜렷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특히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할 때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회 속으로 파급됩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이런 점을 잘 파악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특히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도덕적 문제의 대부분은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 부화된 인본주의적 철학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소위 '신윤리'라 하는 것은 사실상 '윤리 부재' 철학에 의한 결과이며 이처럼 유행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상이나 생명에 관한 분야는 오늘날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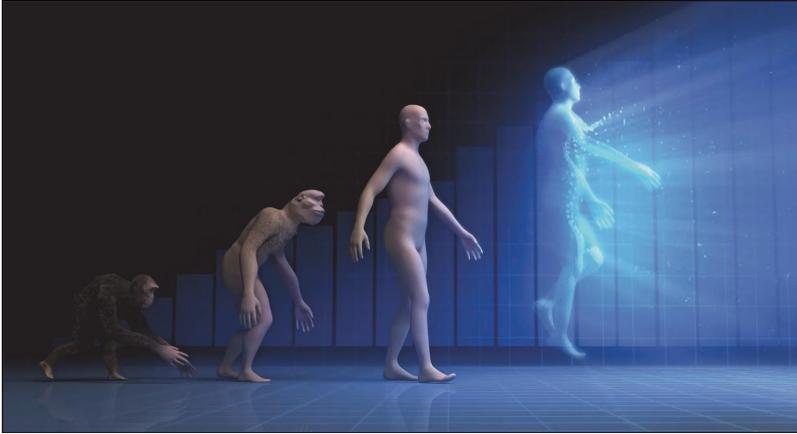
1925년에 미국에서 '스콧스 재판'이 열린 이후에 일반인들은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였고 성경적 창조주의를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하고 내동댕이쳐 버렸다. 무기력한 기독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진화론자들의 대폭격 앞에 무릎을 꿇어 타협하거나 뒤로 후퇴해 버렸으며 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많은 신자들의 믿음은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은 살아 있지 않은 물질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레디, 파스퇴르, 그리고 스펄란자니는 생명이란 반드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생명으로부터 나옴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더러운 옷에서 쥐들이 태어난다는 것과 같은 우스운 생각들이 마침내 역사의 뒀안길로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발생설의 부당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주장을 철화하고 자연 발생에 의해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큰 역설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생명체인 흙덩이라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메바로 바뀌고 고등 동물로 변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체 진화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자연 발생설이 유행했던 16세기경의 불합리한 사상이 다시 한 번 세련되게 꾸며져 복구된 것에 불과하며 결국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아이러니는 '유기체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며 모순이라는 사실에서 유래됩니다. 합법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생각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성경적 창조론'은 최근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매우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진화론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 설계' 혹은 '지적 설계자'라는 개념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 진화의 끝은 영적 진화이다.
 힌두교, 불교는 윤회의 과정을 통해 사람이 결국 신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비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창조론/지적 설계론을 선호하며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여러 주(洲)들은 과학 교재 안에 창조론을 넣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창조론에 대한 강연과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방면에 뉴에이지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서점에 가 보면 뉴에이지 문서들을 취급하는 진열대가 기독교 및 다른 종교들의 문서들을 다루는 진열대만큼이나 될 정도로 이제 뉴에이지는 대중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CD나 레코드판들을 취급하는 곳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며 특히 인기 연예인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상이 쉽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에이지 운동이 이처럼 인기를 끌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뉴에이지 운동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사람의 윤회를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윤회란 무엇일까요? 윤회란 사람이 주어진 삶 속에서 진보(혹은 진화)하게 되면 그 다음의 삶에서는 더 좋아지고 이렇게 수천 번의 진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신(혹은 부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인간의 진화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신(혹은 부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진화에 대한 가르침이나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육적 진화의 가르침은 결국 동일한 것으로 모두 사탄 마귀에게서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의 모든 기초는 창세기 속에서 발견됩니다. 죄, 사망, 질병, 결혼 등의 기원, 올바른 윤리관, 성경적 구속사, 구원자의 필요성 등이 모두 창세기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 중에 사람이 죽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책이 있습니까? 죽는 이유를 안다면 살 수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창세기의 처음 11장을 신화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사고 체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우주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이 ‘보이면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한대에 이르는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이라는 미세한 스펙트럼만 보입니다. 이것을 크기로 비유하자면 지구와 10원짜리 동전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정도로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무한대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사람은 짐승과 달리 바로 이런 능력을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히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믿음’(Faith)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고후5:7).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2 Cor. 5:7).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단어를 살펴보면 ‘본다’는 의미의 ‘sight’는 ‘믿음’(faith)과 정반대로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믿음’은 ‘sight’의 반대말인 ‘insight’, 즉 ‘통찰’(보지 않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11:3).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창조하다’의 ‘Create’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들다’의 ‘Make’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만들다’는 말은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無)에서 만들어졌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음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혹은 우주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어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창조’나 ‘진화’와 같은 개념은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증거를 눈앞에 제시해야만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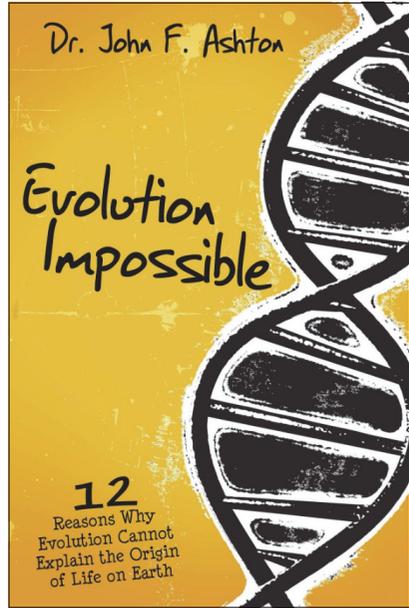
창조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설계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며 거기에 순응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진화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결국은 마귀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여정이 결정되며 그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장소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창조의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를 정해 주는 필수 불가결한 기초입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유학 및 이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모국에 돌아온 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2008년에 이 글을 지음). 저는 대학에서는 물리학의 한 부류인 열역학을 학기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열역학은 ‘물질 및 에너지 보존의 법칙’(제1법칙)과 ‘만물 쇠퇴의 법칙’(제2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로 채택한 영어 교과서의 저자는 기계 공학적 관점에서 제1, 제2법칙을 모두 설명한 뒤 과연 이 법칙들이 우리의 사고 및 우주의 영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 부분에 오면 저는 학생들에게 ‘창조와 진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뒤 제 딸이 물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과학’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자신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신들의 조상이 원숭이었다고 믿을 뿐이며 그것이 과학 자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보여 주려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의 예를 들어가며 유기체 진화론의 허구점들을 과학적으로 밝히 보여 줄 것입니다. 둘째, 성경적 창조론과 노아의 대홍수/대격변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가 길지 않음을 보여 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반되는 견해를 비교해 본 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알려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욥12:7-10).



종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진화와 지화로의 폐해



Evolution and Its Evil Effects

진화란 무엇인가?

창조와 진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 진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키 백과>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진화(進化)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일으키는 과정을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이다. 여러 생물 종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해 현재의 모든 종이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먼 과거의 공통 조상, 즉 공통의 유전자 풀로부터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진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 형질이 전달되는 도중에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이다. 진화가 일어나는 주요 작동 기제는, 생물 집단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의해 유전 형질이 선택되는 자연 선택과,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부동이다.

자연 선택으로 인해, 생물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유리한 유전 형질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불리한 형질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유전자 부동은 독립적인 유전 형질들이 생존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종들로 분화한다.

진화 생물학은 생물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화 현상을 연구하여 진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학문이다. 진화 생물학은 19세기 무렵 화석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의 변화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제시됨으로써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진화 생물학은 찰스 다윈과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가 1858년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에 제시된 자연 선택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윈이 1859년 출판한 책 <종의 기원>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진화는 모든 생물에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생물 개체들은 자연 선택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다. 이러한 적응은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는데 유리한 몸의 형태 등과 같이 생물 개체가 살아가는 데 유리하도록 고착된 유전 형질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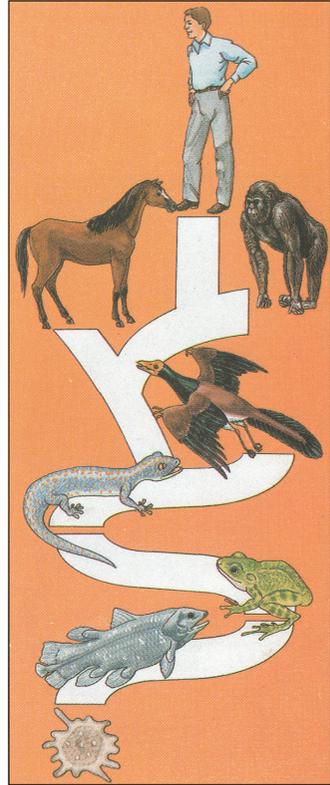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최초의 공통 조상 또는 최초의 동일한 유전자 풀에서 분화되었다. 오늘날 생존해 있는 모든 종은 종 분화와 멸종을 반복하며 일어난 진화의 결과이다.

과거의 생물들은 진화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화석은 과거 생물의 형태적 특징과 해부학적 특징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최초의 생물이 언제 출현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0-40억 년 전 무렵에 원핵생물이 출현하였다. [참고로 원핵생물이란 세포 내의 핵의 요소가 되는 물질이 있으나 핵막(核膜)이 없어 핵의 구조가 없는 생물을 말하며 세균과 광합성의 능력을 가진 남세균, 광합성의 능력이 없는 원핵균류가 있으며 이것의 발생은 29~34억 년 전으로 추정된다. <표준 국어대사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물의 흔적은 6억 1천만 년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다. 다세포 생물은 급격한 진화의 과정을 거쳤고 1억 년이 흐른 뒤 캄브리아기에 이르러 생물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이미 현생 생물의 형태와 관련이 깊은 대부분의 생물들이 출현하였다.

5억 년 전 무렵이 되자 식물과 균계 생물이 지구 전역을 뒤덮게 되었으며 절지동물과 여러 동물들 역시 출현하게 되었다. 3억 년 전 무렵 다른 양서류 동물들에 뒤를 따라 양서류가 등장하였다. 포유류의 출현은 2억 년 전 무렵에 일어났다. 1억 년 전 무렵에는 조류가 파충류에서 분화하였다.



고전적인 진화론의 계통도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이처럼 진화론자들이 복잡하게 진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진화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200억 년 전에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빅뱅(Big Bang)이 있었다.
2.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다.
3. 5,000만 년 전에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생겼다.
4. 100만 년 전에 첫 사람이 나타났다.
5.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6.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종의 변화가 생긴다.
7. 이 모든 것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8. 사람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은 아무 목적 없이 무작위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9. 결국 사람은 짐승에서 진화한 존재로 궁극적으로 짐승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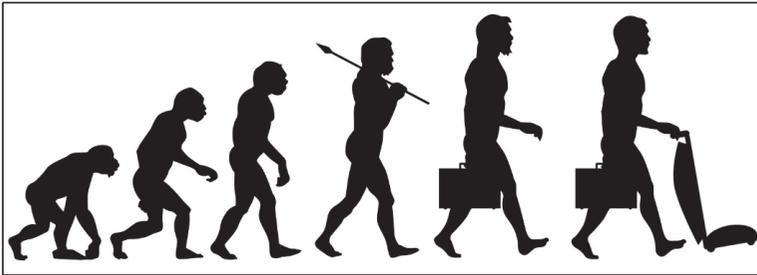
앞 페이지에 있는 진화론의 계통도는 진화론의 가설에 따른 인간의 진화와 종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가만히 이 계통도를 보면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 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종이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1).

종이 변한다는 진화론의 주장과 종이 고정되었다는 성경 말씀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 같은 허구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보셨는데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시5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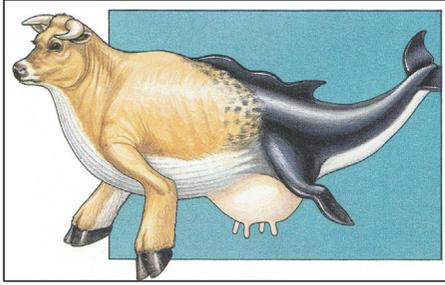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5,000만 년 전쯤에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에서 나와 지금의 현대인으로 진화하였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상상 속에서 그리는 인간의 진화 과정

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나 말 같은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 진화한 결과가 바로 포유동물인 고래입니다. 또 물고기가 진화하면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펴는 진화론자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종의 변화에 필요한 중간 단계, 즉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중간에 존재하는 단계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도, 땅속에도, 물속에도 심지어 화석에도 그들이 상상하는 중간 단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는 단 하나도 없다

진화론은 마치 과학인 것처럼 학교에서 당연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만연 및 폐해

우주가 저절로 형성되어 우연의 과정을 통해 현재처럼 복잡하게 되었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주가 과거의 엄청난 세월 동안 존재해 왔으며 다가올 시대에서도 본래의 진화론의 궤도를 따라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혹시 지구에서 앞으로 이런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멀리 떨어진 별들에서라도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가 세운 이 같은 인본주의 체계는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성경적 세계관과 맞서 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과정들이 삶, 죽음, 그리고 윤회¹⁾라는 반복되는 주기 안에서 일어난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류 중 어떤 이들은 또한 복잡한 생명체의 점진적 발달이 태초의 어떤 혼돈으로부터, 아마도 어떤 형태도 없는 물 덩어리 또는 에너지를 띤 분자들의 원형질로부터, 심지어는 어떤 우주론적 사고 체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진화론은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여러 형태를 취하였지만 그 형태에 상관없이 진화론 추종자들은 항상 지금까지 엄청나게 긴 세월이 흘렀다고 주장해 왔으며 또한 인격적이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성경은 우주가 진화론적 발전에 필요한 긴 세월을 거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인한 6일간의 짧은 창조 행위의 연속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초자연적으로 생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

1) 기독교는 부활(Resurrection)을 믿지만 이 세상의 다른 인본주의 종교들은 대개 윤회 혹은 환생(Reincarnation)을 믿는다. 이 두 단어의 접두사 'Re', 즉 '다시'가 보여 주듯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삶 외에 다가오는 삶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 환생을 믿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다.

도다(시33:6).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11:3).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창조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긴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며 따라서 장차 올 완전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구속하실 세상을 예비하시는 데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사실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전에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안의 모든 것은 창조되는 순간에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숙한 창조(God's mature creation)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는 아기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30세 정도의 성숙한 남녀로 창조되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도 사실 하나님의 성숙한 창조를 이해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수탉과 암탉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을 때 온 우주의 구석구석은 이미 다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멀리에서 오는 빛의 속도를 알아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허사이며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간의 투쟁,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 속에, 즉 여러 국가들이 창건되고 멸망해 온 지나간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날과 해와 세기가 역사 속으로 흘러가 잊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更點)과 같을 뿐입니다(시90: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며 구원받은 우리도 다가오는 영원 속에서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으니이다(시90:4).

하나님께서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때부터 인류 역사의 끝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류의 반항에 의해 잠시 방해로 받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救贖)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성육신) 이로써 우리의 창조자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 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를 물리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천국에 잠시 동안 계신 뒤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뒤에 새로 창조될 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인류가 새롭게 만들어진 땅에서 자기들의 위대하

신 창조자/구원자를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재림의 약속들을 기록하셨고 이 약속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일시적 거주지에서의 삶에 필요한 지침도 다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짧은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말세가 가까이 옴을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지침들과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세에 있을 진화론/인본주의의 만연

비록 성경 예언에 관한 서적들을 쓴 다른 저자들이 대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장 주요한 표적은 아마도 진화론적 인본주의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추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의 한 형태 또는 다른 형태는 불교나 힌두교 등의 범신론적(pantheistic) 세계 종교들뿐만 아니라 고대 이교도들의 모든 종교들에게 특징을 부여해 왔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새로운 것은 전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일신론적(monotheistic) 세계관을 가졌던 민족들도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 정복당했다는 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말세에는 이러한 상황이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고백하는 나라들에서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베후3:3-4).

여기서 마지막 날들에 등장할 비웃는 자들이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거나 최소한 기독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와 ‘재림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자의로 거부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는 드러내 놓고 그러한 것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유는 진화론을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과거를 통해 늘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계속되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창조란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창2:1-3) 이미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비웃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자연적인 창조가 없었으므로 말세에도 초자연적인 멸망이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기독교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조롱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보여 줍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구호는 저 악명 높은 ‘제2차 인본주의 선언’(1973)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채택한 발언으로 이것은 실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의 발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언은 19세기 중반에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적 세계관이 대두되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했고 현재 이러한 인본주의 세계관은 학교, 대학, 뉴스 미디어, 정치 체제, 오락 산업, 비즈니스 세계, 각종 직업, 법정 그리고 심지어는 소위 기독교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주요 교회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통과 유대인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 공동체들과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통과 무슬림들 중 소수를 제외한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대부분도 이런 범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창조자와 그분의 구속(救贖)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명백히 성취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최근 몇십 년간 여러 나라에서 진화론에 대항하는 창조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이것은 전 세계를 삼킨 뒤 그 지도자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밀물처럼 퍼져 나가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와 비교해 볼 때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과학적/역사적 증거들이 모두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진화론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해 버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두 개의 초자연적이며 세계적인 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6일 만에 특별히 창조된 것과 노아의 대홍수에 의해 전 세계가 급작스럽게 멸망한 것(벤후3:5-6)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자연계의 압도적인 증거들을 제멋대로 무시해 버립니다. 모든 체계의 복잡한 구조 안에 있는 증거들과 이런 증거들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들이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지질학적 구조물과 그 안의 화석 묘지들도 노아의 대홍수를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만물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진화론적 신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비웃는 자들은 이미 예언된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 모든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화론으로 인한 도덕과 윤리의 붕괴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명백히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그분의 명령들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거룩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시공간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셔서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표준들에 의거하여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세계관은 현재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 또한 말세의 표적으로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딤후3:1-7).

말세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철학을 묘사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경고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생생한 마지막 경고는 말세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중심적 행동은 자기중심적 철학이 낳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언은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 안에 있을 인본주의 철학의 대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사도 바울의 예언은 이 같은 기독교 국가들의 인본주의적 행동의 기승, 즉 도덕의 붕괴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시인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인본주의자들 - 의 특성, 즉 자기 사랑, 교만, 신성모독 등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고대 이교도들의 특성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롬 1:29-31). 이것이야말로 말세의 표적들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교도들의 인본주의적 신념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양식까지도 받아들여 이교도 문화에 굴복당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의 붕괴는 오늘날 소위 기독교 국가로 불리는 나라들 안에서 참으로 개탄할 정도로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의 모든 특성들이 짝을 이루며 잘 들어맞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이교도 국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국가들을 특징짓는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교도 국가들의 인본주의 문화는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롬1:25) 진화론적 철학에 기초를 두었는데 오늘날에는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문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가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생긴 '위험한 시기', 즉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표적이 됩니다.

동성애의 창궐과 진화론

도덕의 붕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동성애의 창궐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최근 들어 동성 결혼 열풍이 유럽과 미국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2001년 4월 1일 동성 결혼을 승인한 이후 전 세계에서 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별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015년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영국에서는 2020년부터 동성 결혼 승인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²⁾ 유로 뉴스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 기관 입소스가 유럽 등지의 16개국에 거주하는 성인 12,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 에이즈 연맹은 1996년 보고서에서 국내 동성애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전국의 게이바 등의 실사를 기초로 동성애자의 수를 11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1995년도 전체 남성 인구가 2,239만 명이므로 이것은 전체 남성의 0.49%가 동성애자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 과학 연구소가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1.1%와 여성의 0.3%가 동성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동성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민들이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해서 하나의 압력 단체를 이루어 서구 사회와 같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동성애와 진화론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면 늘 다음과 같이 진화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동물에서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실 평생토록 부부로 사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또 많은 경우 동성 동물끼리 서로 성적 접촉을 갖습니다. 모든 양성 동물들이 무성 혹은 중성 동물에서 진화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고차원의 동성애자는 철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동성애를 '유익을 끼치는 돌연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는 태어나면서서부터 그렇게 태어난다고

2) 나무 위키, 동성 결혼/국가별 현황 자료 참조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성애가 인구 증가 없이 성적인 필요를 채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자연적인 선택’(natural sel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다산하여 땅을 채우게 하신 성경의 창조 관점을 아예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1:27-28).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파급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늘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의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다윈주의, 노예화와 전쟁

위에서 언급한 도덕의 붕괴 외에도 진화론은 사회 정치적/경제 산업적 재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이,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 쳐서 숨겨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약5:1-8).

위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약육강식의 진화론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상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가와 노동자, 주인과 노예 간의 끊임없는 갈등³⁾이 마지막 날, 즉 마침내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할 ‘살육하는 날’이 되면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적 표적은 ‘산업 혁명’⁴⁾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3) 현시대에서 이것은 보통 양극화라고 불린다.

4)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 영국에서 일어난 방적 기계의 개량이 발단이 되어 1760-1840년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일어났다. 수공업적 작업장이 기계 설비에 의한 큰 공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산업 혁명이 대단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부자 소유주의 공장에서 무자비하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큰 불행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뿐만 아니라 피의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후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살육하는 날'이 노동자 계층의 속박된 운명을 어느 정도 완화하긴 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무자비한 집권자들과 귀족층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비록 이런 혁명들이 부르주아 계급(부유층)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저소득층) 혁명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유럽과 미국의 국제적 은행가들과 상인들이 이런 혁명들을 부추기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살육하는 날에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었습니다.

전쟁과 노예 제도, 노동자 착취, 자본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와 이와 비슷한 예들은 진화론 특히 산업 혁명 이래로 자연 선택, 생존을 위한 투쟁과 적자생존 같은 진부한 표현들에 의해 촉진된 진화론의 한 형태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이를 정당화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체제는 사회적 다윈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은 특별히 영국의 경우 스펜서, 맬더스, 다윈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독일의 경우 니체, 헤겔, 비스마르크, '독일 황제 빌'과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록펠러, 카네기, 그리고 또 다른 '약탈자 귀족들'을 통해 강성해졌습니다. 이들은 다 열렬한 진화론자들이었는데 비록 이들이 자기들의 방법이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의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얻은 결과는 대중들이 크게 착취를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불간섭 자본주의, 공산주의, 히틀러의 나치주의, 인종 차별, 제국주의와 세계 대전 등은 진화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어떤 혁명이나 법령을 찾지 말고 이러한 표적들이 예고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가난한 대중들의 운명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있으며 - 최근에 공산당의 착취로부터 도망 온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과 미국의 빈민가 인구의 증가를 포함해서 에티오피아, 인도, 수단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굶어 죽는 인구를 생각해 보라 - 사실 마지막 날의 이 표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전보다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희망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진화론의 폐해

진화론이라는 인본주의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천문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스며들어 진화론적 신념의 탑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적 사고는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교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 다윈의 진화론이 파급되지 않던 시절에는 누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래부터 원숭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마귀의 인본주의 진화론 세뇌 효과는 대단히 큼니다.

위에서 요약한 진화론의 주장은 사실 다 허구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진화론자들은 철석같이 믿지만 사실 그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즉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입니다. 진화론은 관측이나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에 대한 정열과 신념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국내에서 실시된 최근의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신앙 상실의 결정적 원인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면서 과학의 탈을 쓰고 성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부릅니다. 그들에겐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초중고교에서의 누적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진화론적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들은 약육강식을 통한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약자를 짓누릅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도 환경도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진화론적 가치관으로부터 온 폐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선 진화론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서 창조론의 과학적 진리로 굳게 무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원이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뜻합니다. 기원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가며 기원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기원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체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개인적 목표 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생활 형태를 조정할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기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만일 진화론의 철학이 옳다면 삶이란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확신, 행동, 그리고 신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우주의 기원에 관한 질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창조 세상 가운데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처음에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들이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능과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셋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작점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종착점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착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차에 기름 넣고 계속해서 떠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요?”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냥

차 가는 대로 갑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와 우주의 출발점이 어디고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알지 못하면 대단히 불안합니다.

1. 우리의 과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어디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태백시 대덕산 검룡소가 남한강의 발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강은 금강산 부근이 발원지입니다. 이 두 강이 5백 킬로미터 넘게 흘러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발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맨 끝에 가면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기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맨 끝에 가면 원승이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공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씩 자동 할당대서 그들을 상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등에 대해 다 상담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겨 놓고 끝에 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너의 기원에 대해 물어려 한다. 네 할아버지는 뭐였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십 대 위의 할아버지까지는 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백 대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또 백 대, 이백 대, 삼백 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기고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무 살이 넘도록 한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는 자기의 처음 조상이 원승이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학교에 가면 원승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원승이가 네 처음 조상일 것 같니? 너는 지금 과학을 한다고 공과 대학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네 처음 조상이 원승이일 것 같니?” 이렇게 진지하게 물으면 “원승이는 아닐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원승이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승이라고 주장하며 역지를 부리기에 무심코 원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승이에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만 상식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존재했을까요?”

사실 진화론자들도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구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말할까? 약 50억 년 전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2. 인간의 기원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이제부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A. 진화론

첫째 이론은 ‘무(無)에서 유(有)가 나왔다는 ‘진화론’입니다. 이 이론은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생명에서 질서가 낮은 아메바가 나오고 거기서 고등 질서를 가진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과학 교사들과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의 대부분이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이들에게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라고 물으면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생명은 다 어디서 나오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이야기해도 거짓말입니다. 죽은 개나 돌덩어리는 결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며 상식적인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제 종이 바뀌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상과 온 우주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고양이 가 개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없고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지금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숭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숭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으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화석에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속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설계하지 않고 볼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경, 마이크,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이 설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종로에 가서 얼마 전에 새로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상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압니다. 불신 과학자들만 이런 상식을 모릅니다.

그러면 지혜가 많다고 공언하는 학자들, 즉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녔다는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우주 공간이 ‘빅뱅’에 의해 갑자기 생기고 무생명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원숭이가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하고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믿고 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항상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믿는 것이므로 종교 체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다 알고 초등학교만 다닌 노인들도 다 압니다.

B. UFO 이론

둘째 이론은 UFO 이론입니다. 요새 UFO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다른 별에서 고등 생명체가 와서 지구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본 다니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는 원래 진화에 의해 동물과 식물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0년 전에 우주에서 지적인 초인간들이 와서 유전 공학을 통해 땅에 있는 원숭이들을 변화시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약 7,000년 전쯤에 이 땅에 다시 와서 그중에 두 명을 취해 유전 공학을 좀 더 잘 이용해서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현시대 인류의 조상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상 과학 영화들은 대개 외계에서 UFO와 외계인들이 와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UFO 이론으로 인해 그런 영화들과 책들이 지금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허튼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다 성경의 연대와 맞추려고 7,00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온 우주와 땅과 첫 사람 아담과 이브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처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2012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각본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존재나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종말을 맞아서 노아처럼 배를 짓고 산 위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성경을 따서 줄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작가들은 많은 경우 성경에서 어떤 단편적인 것을 추려서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한 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UFO 이론에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UFO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초인간들이 와서 유전 공학을 이용해 지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적 설계를 믿고 있습니다. 즉 설계자가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초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초인간들이 지적 설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이 초인간들도 누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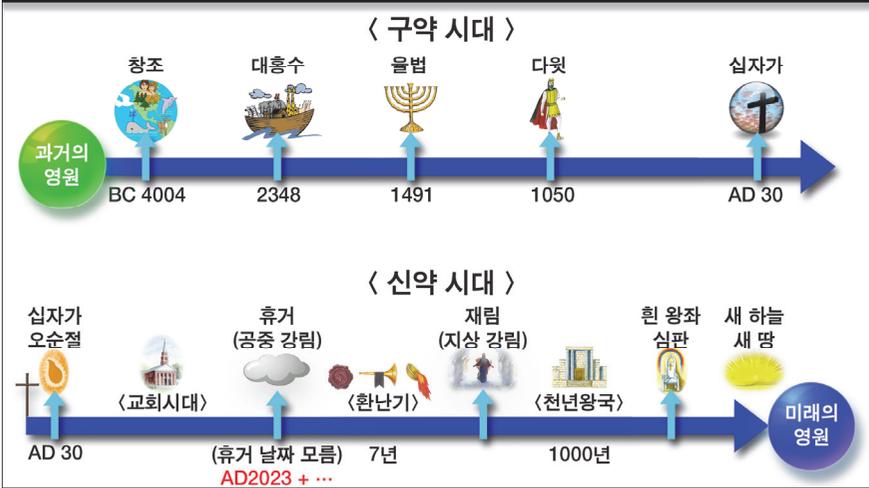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번 볼만 합니다. 돈 모아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다녀오면 매우 좋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원시인들이 짐승 가죽으로 몸의 앞부분만 가린 채 동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글도 못 쓰는 무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들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UFO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와서 이스터섬의 석상이나 영국의 스톤헨지 고인돌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다 만들어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로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수명이 500세나 되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쇠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시대 인류가 더 지적으로 우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지난 4,000년 동안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하고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지적 설계가 없이 지적인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말이 막히면 외계에서 UFO가 와서 고대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 타임라인



세상 학자들의 이론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되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 놓은 인본주의 철학 체계, 종교 체제의 핵심입니다.

C. 하나님의 특별 창조

셋째 개념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입니다. 진화론과 UFO 이론 그리고 특별 창조 외에는 기원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창조의 핵심은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모든 것을 만들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가 사람과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가장 과학적인 진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그냥 생길 수 있을까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질량이나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보존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온 우주 만물의 질량을 재면 똑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에너지를 재면 똑같습니다. 1,000년 전도 똑같고 2,000년 전도 똑같고 3,000년 전도 똑같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이 0일 때에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기원이 있으므로 분명히 0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에너지와 질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생겼을까요? 그냥 생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그냥 생기면 과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엔 보존이 됩니다. 즉

질량이나 에너지는 생성된 이후로는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우주 공간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가 생겼을까요?

사실 UFO 이론은 진화론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 공간에 모든 별들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모든 창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견해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화 아니면 창조 이 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생겼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둘 중 하나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존재한다. 나는 어떤 존재다.” 등과 같은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즉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한 것은 시간이 0일 때를 가리킵니다.

영원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유한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과거의 영원(Eternity past)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이후에 시간이 생겨나면서 처음에 시간이 0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의 시점으로부터 지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약 6,000년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미래의 영원(Eternity future)이라는 차원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29 쪽의 ‘인류 역사 타임라인’ 선도 참조).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우주 공간과 땅, 즉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고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 사람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됐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 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개역성경이 이 부분을 “산 영이 되었다.”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여러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은 다음에 자신의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존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혼’, 즉 ‘살아 있는 전 인격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 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히10:39; 벰전1:9-10).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특별 창조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를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돈이나 선행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 체계에 창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 체계 중에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에 왜 그것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서는 사람이 왜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는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성경전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에서 저는 창조를 주장하는 믿음 체계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를 믿고 창조 사실을 지지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연구하고 책을 펴서 알리는 일들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에 창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사람이 살다가 나쁜 일 하면 벌레도 되고 잘하면 그다음에 또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하면서 빙빙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힌두교나 뉴에이지도 100% 불교와 같습니다.

몇 년 전 석탄일에 방영된 어떤 TV 프로그램에는 개가 불교 신도들과 함께 부처를 공경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거기 있던 사람이 이 개는 전생에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불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 ‘견부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는 ‘우부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TV 방송에 이런 것이 나오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1996년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무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종이 불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교황이란 말은 교회의 황제라는 말입니다.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부들이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유신론적/진화의 창조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절대적 창조가 아닙니다.

그다음 이슬람교를 봅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도에게 창조를 믿느냐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슬람교 학자나 종교 지도자 중에 알라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들고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연구하고 책을 써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창조를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공간과 사람들, 하나님이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해서 6일 동안에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하는 실질적인 창조를 믿는 체계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언급합니다. 이 종교를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앞으로 천주교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핍박할 마귀의 믿음 체계입니다. 그 안에는 이성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마귀의 속박으로 이끄는 무서운 체계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인들만 따로 가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옥에는 여러 개의 지옥 층이 있는데 그중의 한 층은 기독교인들 만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뉴에이지 종교는 지금 온 세상에 널리 파급되고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뉴에이지는 힌두교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미국/유럽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회를 믿습니다. 끝으로 무신론이 있는데 그런 헛된 주장에서는 창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는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란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개념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와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람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신학교에서 창조가 틀렸다고 하거나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고릴라 같은 종류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올바른 창조 신앙이 확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원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기원에 관한 한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개의 믿음 체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D. 과학자들의 증언

그러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명한 과학자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1967년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George Wald)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는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잡지 중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잡지로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맨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1967년에 왈드 박사는 그 잡지에서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는 제목을 붙여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셋째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는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이 글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 박사의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자기를 만들고 나중에는 심판한다는 개념 자체를 철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믿기로 했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거짓 시스템을 믿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솔직합니다. 물론 학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며 아메바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서 우주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폰 브라운 박사(Dr. Wernher von Braun)가 1972년 9월 1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 위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그로스 씨:

저는 온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창조론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인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라는 것이 어느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모든 것 뒤에 반드시 설계와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질서 정연하며 잘 짜인 계획이나 설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식물의 모든 종류가 살아남으려 하며 계속해서 퍼져 나가려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대규모로 작용하고 있는 강력한 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조그만 씨를 아름다운 꽃으로 발전하게 해 주는 질서, 즉 대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가득한 질서에 의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거하는 만물의 기묘함을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 밑에 깔려 있는 내적 설계를 보고 더욱더 놀라게 됩니다.

온 우주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는 과학의 영역 밖에 어떤 설계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과학적 방법은 온 우주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어떤 설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학 그 자체의 객관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온 우주가 어떤 비규칙적 과정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뇌나 눈과 같이 고도로 정밀한 기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비규칙적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발견하는 많은 기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주었으므로 언젠가는 그 위대한 설계자의 의도나 목적이 없이도 대자연의 기본 법칙들을 설명하는 창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과학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태양을 보기 위해 촛불을 켜야 한단 말입니까?

지적이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설계자를 그려서 보여 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물리학자가 전자를 그려낼 수 있습니까? 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밤중에 비행기를 안내하기도 하며 매우 정확한 것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우주에 설계자가 존재함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창조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물리학자가 있다면,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무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전자들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합니까?

그가 전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다른 분야로부터 매우 제한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전자에 대한 ‘참으로 영성한 기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자료들로 전자에 대한 영성한 모델을 만들어 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델, 즉 창조론 같은 모델에 대해서는 알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에서 설계자라는 측면에 대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 혹은 과학자들이 - ‘설계에 의한 창조’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연에 의한 진화’에 대한 과학적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 설계자/창조자를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최종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자료들 간의 상호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유용하게 무엇인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어떤 이론을 배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 근무하는 우리는 달에 보낸 아폴로 우주선이 그토록 놀라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종종 요청받곤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변이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간과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과학적 정직성의 관점에서 저는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들, 즉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이론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가 우연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참으로 큰 실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

이 얼마나 진술하고 겸손한 편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앞에 겸손하게 서려는 과학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매우 많습니다. 수많은 획기적 진보와 발견과 발명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과서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적 지성인들의 상당수가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Robert Boyle), 패러데이(Michael Faraday), 플레밍(John Ambrose Flemming), 주울(James Joule), 켈빈(Lord Kelvin), 린네(Carolus Linnaeus), 맥스웰(James Maxwell), 멘델(Gregor Mendel), 뉴턴(Isaac Newton), 파스칼(Blaise Pascal), 파스퇴르(Louis Pasteur) 등.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붕괴된 진화론의 사상을 과학적으로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E. 그냥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은 사실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불가능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입이 좀 써서 집에 가면 오렌지를 한두 개 먹고 잡니다. 미국산 오렌지나 제주도에서 나오는 노란 귤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렌지나무나 귤나무가 노란 물을 짙게 빨아들이니까 과일이 그렇게 노랗게 나오니까? 아닙니다. 포도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어제는 귤을 사러 갔는데 귤이 없어 포도를 샀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오는 씨 없는 포도는 참으로 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땅에서 단물을 짙게 빨아들여 모아 놓으니까 포도가 달게 됩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땅에서 물만 빨아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땅에서 물만 짙게 빨아들이는데 하나는 노란 색의 오렌지를 맺고 또 하나는 붉은 색의 달콤한 포도를 맺습니다.

또 젖소를 한번 보십시오. 젖소가 하얀 물을 짙게 먹으니까 우유가 하얗게 나오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는 무엇을 먹습니까? 녹색 풀이나 말린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얀 우유가 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손톱 깎을 때 손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딱딱한 것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특별히 딱딱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털도 새까만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까맣게 나올까요?

이제 사람의 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부가 같은 곳에 있으면 남편은 아내의 눈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눈을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그냥 두었더니 흙탕물에서 눈이 나왔다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왈드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간섭하는 것, 나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싫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 주는 사례가 눈 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곁에 널려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 1:18-20).

F. 창조의 증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렌지, 우유, 눈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0.4-0.5%의 비율로 매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68억 명인데 이 68억 명을 복리로 계산하는 경우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대략 90-95억 명이 됩니다.

진화론은 ‘균일론’(Uniformitarianism)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균일한 비율로 변화했다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금부터 약 백만 년 전에 첫째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부터 약 백만 년 전에 한 쌍의 인간 부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균일하게 0.4-0.5%의 인구 증가율로 백만 년 동안 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너무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인구가 10^{2100} 명이 되어 됩니다. 10에 2100승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큰 숫자일까요? 온 우주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숫자가 10^{30}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불가능을 뜻합니다. 지금의 인구는 68억입니다.

반면에 성경기록대로 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만 그때부터 1,500년이 지나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난폭한 일들이 생기고 또 거인 종족들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서 거인 종족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노아의 식구 여덟 명만을 빼고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노아의 ‘방주’(Ark)에서 나온 사람이 여덟 명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4,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시 아들딸을 낳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섯 명, 즉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사람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0.4-0.5%의 인구 증가율로 4,500년 동안 불어나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50-70억 명이 됩니다. 50억이든, 60억이든, 70억이든 지금의 인구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수치는 진화론의 비현실적인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

수치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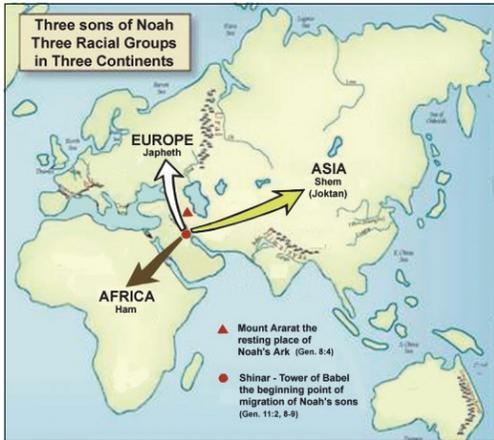
이처럼 성경의 데이터는 실제적이고 현실 상황과 잘 맞으며 진화론과 달리 매우 과학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끈 대격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과 같은 재난도 있었고 자연히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0.4-0.5%의 평균 인구 증가율입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4,500년 동안 복리로 인구를 계산하면 대략 지금의 인구가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BC 2348년경에 발생했습니다. 성경기록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약 4,358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단군 할아버지도 그 이후에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기는 단군의 기원을 뜻하며 BC 233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단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잘 맞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역사 시대는 대개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대개 BC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BC 2000년 이전을 선사 시대라 하고 인도, 이집트 문명도 BC 2000년 이전을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 이전에는 그 모든 지역에 역사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 부근,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흠어지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온 세상으로 흠어시니까 사람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중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역에는 바벨탑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라크 근처에서 살았으므로 다른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역사 시대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세상의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시작되었고 세계 4대 문명도 그 이후부터 존재하였다.

사건 이전에, 즉 BC 2000년 이전에는 역사나 문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록과 잘 맞습니다. 심지어 단군기원도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여덟 명이 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배를 표현할 때 두 개의 글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배 '주'(舟)이고 다른 하나는 배 '선'(船)입니다. 여기서 '주'(舟)는 조그만 배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큰 배를 가리킬 때는 '선'(船)을 씁니다. '선'(船) 자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 '주'(舟)에다 입을 나타내는 '구'(口)가 여덟 개(八) 합쳐서 된 글자입니다. 즉 큰 배에는 입이 여덟 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른 여덟 명을 뜻합니다. 즉 노아가 탄 큰 배에는 여덟 식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義)를 얻습니다. '의'(義) 자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羊) 밑에 '나'(我)라는 존재가 무릎 꿇고 항복하면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홍학하다고 할 때의 '홍'(兇) 자를 보기 바랍니다. '홍'(兇)은 형이 도끼를 내려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누가 동생을 내리쳤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내리치지 않았습

船

義

兇

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 ‘흥’(兪) 자입니다.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벨탑에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의 일부가 중국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상형 문자 안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중국 사람들의 상형 문자 안에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미션하우스에서 나온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사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율,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심지어 단군기원 등의 모든 자료들이 성경기록을 지지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계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세상에 나온 지 이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다. 사실 예수님도 비행기를 못 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멋진 기계입니다. 비행기가 뜨면 그 안의 모든 것이 마치 땅에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급격한 기류 변화가 생기면 조금 흔들리지만 대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으로 목사의 아들들인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매우 많습니다. 작은 비행기는 백만 개 그리고 우주 왕복선 같은 복잡한 비행기는 적어도 천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 터져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까요? 이런 기계가 그냥 생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쓰고 고안을 해서 천만 개 부품을 다 설계하고 청사진을 만들어 그것과 대조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조립할 때 드디어 비행기가 설계한 대로 나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나로호라는 우주 발사체, 즉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의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 공간의 미아가 되어 아무 임무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도 또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설계한 대로 제품이 나오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 발사체 같은 것이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품 천만 개를 10년 동안 흔드니까 우주선이 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두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람이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제작해서 조립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는 큰 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고 또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우리 은하’라고

하는 넓은 우주 공간에서 보면 거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티끌만한 존재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구를 품고 있는 은하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 압니까?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앞에서 비행기 부품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많아야 천만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별이 천억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부딪치지 않고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하며 돌고 있습니다. 놀랍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전체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이면 은하군이 되고 은하군이 모여 은하단이 되며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은하단이 모이면 우주가 됩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 안에 은하가 몇 개일까요? 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별이 몇 개일까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즉 무한개의 별이 지금도 질서 정연하게 각각의 궤도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질서를 가지고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처럼 전혀 흐트러짐 없이 회전하는 것이 설계 없이 가능할까요? 그냥 흔들든지 혹은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에 의해 무작위로 평 하고 튀겨 나오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숫자의 별들과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또 그것들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에너지나 질량이 그냥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빅뱅’에 의해 쿵알이 평 하고 튀겨 나오면서 다른 별들과 함께 지구와 태양이 나오더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로 우연히 정해지게 되었다고 하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평 하고 뱅튀기를 튀기듯이 튀겼더니 태양과 지구가 나오면서 거리가 딱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로 고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가 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지구에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이라도 멀면 추워서 다 죽고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다 타서 다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딱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창조물이 지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래야 할까요? 처음부터 그래야 합니다. 처음의 한 달만 거리가 달라도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둘 사이의 거리가 일주일만 달라도 다 얼어 죽거나 타 죽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주일만 태양이 뜨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것이 얼어 죽습니다. 일주일만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오면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규칙이 맞고 질서가 있어야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이 맞으면 모든 것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설계해서 처음 생기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질서를 갖추어야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딱따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따구리는 ‘딱딱딱딱’ 하면서 머리로 나무를 쪼니다. 1분 동안에도 수십 번씩 나무에 머리를 박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따구리의 머리에는 완충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바퀴에 달린 완충 장치, 즉 쇼크(충격)를 흡수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라는 장치가 쇼크를 흡수하므로 운전자는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딱따구리의 부리와 뇌 사이에도 이런 충격 완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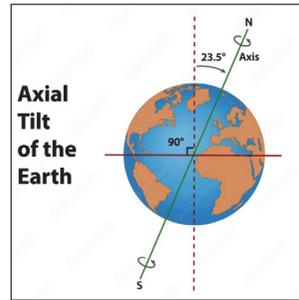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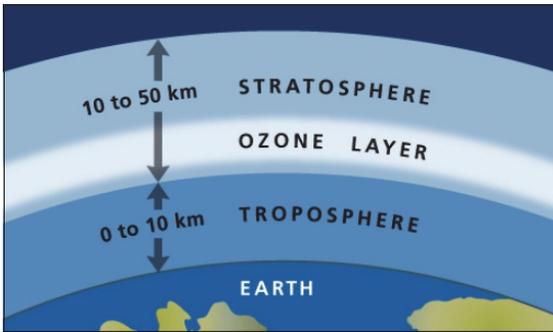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완충 장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딱따구리는 하루 지나면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몇 번만 ‘딱딱딱딱’ 하고 헤딩하면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종족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따구리가 지금까지 보존되려면 처음부터 완충 장치가 제대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딱딱딱딱’ 하며 머리를 받아도 죽지 않고 알을 낳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이주 본능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 본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존재하던 철새들은 다 떨어져 죽었을 것 아닙니까? 바다를 가다가 새끼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되고 제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모두 주눅이 들어서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것은 다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체적비로 약 21% 들어 있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도 죽습니다. 독이 됩니다. 산소가 너무 적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약 21%만 있어야 됩니다. 21%입니다. 그러면 21%가 우연히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의 여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주를 만들면서 지구에서부터 약 40km 상공에 성층권이라는 층을 만들고 거기에 오존을 두셨습니다. 이 오존층(Ozone layer)이 없으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이 사람이나 생물에겐 투사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피부암, 백내장 등이 생겨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존층 역시 처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땅이 생길 때부터 혹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오존층이 있어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졌습니다. 이번엔 아이티에, 칠레에 지진이 나서 지구 축이 조금 더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야만 사계절이 생깁니다. 여름과 겨울이 생깁니다. 이런 기울기가 있어야 곡창 지대가 북쪽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지금도 캐나다와 미국이 식량을 대주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곤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므로 미국이 식량을 팔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북반구에 곡창 지대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금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23.5도 기울기 등은 성경에 없으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어떤 신이 지구를 등에 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틀라스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아틀라스 타이어’, ‘아틀라스 배터리’ 등. 아틀라스는 지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아틀라스가 지구를 등에 메고 있다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면 지진이 생긴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즉 지금부터 약 2,000-3,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살던 사람들이 아틀라스에게 문제가 생기면 땅에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대격변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봅시다. 욥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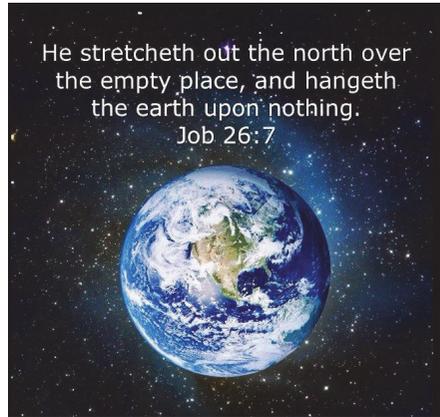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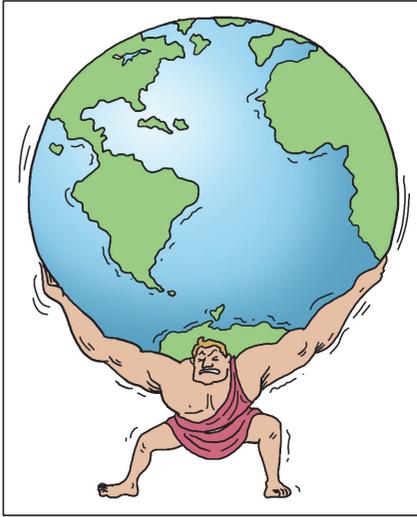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이 우주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가 이렇게 허공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구가 허공에 달린 줄 알았을까요? 또 지구만 허공에 걸려 있습니까? 태양도 허공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이 줄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몽땅 다 허공에 그냥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공에서 그냥 들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는 지구 밖에 나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이처럼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직육면체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앞으로 쪽 나가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보면 땅이 둥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땅의 원’(circle of the earth) 위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땅을 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골동품이며 그 안의 기록은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공에 걸려 있는 지구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구닥다리 책으로 인식합니다. 땅이 이렇게 허공에 들려 있다고 해도 “아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연필을 한번 올려놓기 바랍니다. 그것이 뜬니까, 안 뜬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 뜨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서는 물체가 허공에 걸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구는 허공에 매달려 뜰 수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땅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허공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땅은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합당하며 너무너무 신기하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런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탄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어리석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욥기 12장에서 욥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7-10절에서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사람만 모르지 심지어 물고기와 새와 땅도 다 안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그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4,0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데이터, 즉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현재: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요? 또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축구팀은 무엇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까? 축구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가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승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일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빗자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히터도 있고 볼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쓰려고 이것들을 만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것을 연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일에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찾아서 이루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재물을 모으려고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0년은 삼성가의 창업주 이병철 씨의 출생 백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분의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그분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매우 열심히 자기를 억제하면서 성공하려고 시간을 쪼개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삶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며 시간을 아끼고 일본을 오고 가면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또 나라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일구어서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가난에서 빼내야겠다

는 일념이 있어서 그분은 자기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호걸들의 삶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은 하나님 앞에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비참한 존재로 판명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스스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꼭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추구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는데 이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껏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야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다 소비하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혼자 지내면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래서 모두 친구를 사귀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 분이 서로 친근한 교제를 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하게 할 목적으로 처음에 그룹, 스랍, 천사장, 천사 등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사14장; 겔28장).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그러면 내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너희가 행한 일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 공간에 사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입증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4:24).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첫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창1:26). 이것은 하나님과 사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특성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이런 특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 “깃털이 같은 새끼리 같이 모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존재들과 사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특성과 본성과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적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벽함을 증명해서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 주시려 하셨습니다(엡3:9-11).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의 일부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 의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려면 자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이 자유 의지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1:4).

로봇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시간 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잘못을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 제게 딸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좋은 차를 한 대 사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일도 보고 원하는 것을 제때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아서 오용하고 남용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다든지 혹은 차를 가지고 다른 악한 일들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선물을 준 것이 잘못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선물을 준 사람의 뜻을 어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선악과나무를 두었느냐, 왜 자유 의지를 그들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악과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대의 모든 자유 속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아니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시금석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무한대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 안에 들어 있는 조그만 시금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로봇으로 만들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더 싫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기를 그들은 분명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좋고 중요한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선하게 그것을 쓰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남용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과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혼(魂)이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16:26)

여러분 주위를 보기 바랍니다.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혼보다 귀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3:16-17).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인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개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듯이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별다른 것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 배운망덕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4. 우리의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부터 사람의 미래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생은 나그네 길ियो 여행이다.”라는 말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도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조건 핸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차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다 어딘가 목표를 정해 놓고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지도를 보든지 머릿속에서 길을 생각하면서 최종 종착지를 향해 갑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스프링벅’(Springbuck)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빨리 달려가므로 이 양들의 이름은 ‘스프링벅’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산양들은 대개 큰 떼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무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잔디를 먹어 치우면 뒤에 있는 것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무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뒤에서 미니까 밀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에 있는 것들이 뛰어나가니까 자기들도 그냥 뛰니다. 이름이 ‘스프링백’이니까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이렇게 한 떼의 양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뛰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양들과 비슷하게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 사는지, 걷는지, 뛰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남들이 하나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을 따라 걷거나 뛰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까? 남들이 뛰니까 통통통통 뛰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오십이 넘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초와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길이가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새 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미 ‘새 초’에서 삼분의 이가 타 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이처럼 타서 날아갔고 이제 삼분의 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70-80세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다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직 이십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인생은 많이 타서 이제 10센티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즉 이것만 타면 제 인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 확실히 가는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무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 너희 나이에서는 무덤, 죽음 같은 것을 이야기 하면 그것이 무슨 애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쪽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의 삶의 연수가 70-80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또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정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늦추신다면 아마 다음 세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백세까지 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장수(長壽)가 많은 경우에 재앙입니다.

공부를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서 취직했다가 오십 세에 직장에서 나오면 그 뒤 오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니?”라고 물어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오십 세가 되면 대부분 직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별 수입 없이 나머지 오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을 보니까 죽음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히2:14-15).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뭐가 두려워? 나는 죽을 때까지 용기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이라 2개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렇게 큰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대개 그와 같은 판정을 받으면 얼굴이 새까매질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와 같은 짐승도 도살장에 갈 때는 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와 무슨 일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면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하고 맺은 약속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딱 약속이 잡히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정확하게 제시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무엇을 하고 또 어느 계절에 거기 가는 것이 제일 좋냐고 물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손님이 올 때마다 대역섯 번 거기에 갔으니까 이런 정보에 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담요 하나 갖고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가서 하늘 바라보며 잔디에 누워서 한잠 자면 정말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보시면 “야, 정말 이 많은 물이 어떻게

이처럼 쉬지 않고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떨어집니다. 여하튼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누가 물으면 저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행지나 내가 과거에 해 본 어떤 일을 누가 물으면 어느 정도 소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실험해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인물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천국에 다녀왔다거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다. 그들은 죽음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죽음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지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습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특별하게 살리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었다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몇 가지 원소(元素)로 이루어진 물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생명이 다하면 그냥 뼈가 썩고 살이 썩어 없어져서 원래의 원소들로 이 땅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윤회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잘 알다시피 진화론자들 중에서 한 부류는 ‘윤회’를 믿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 개처럼 산 사람은 개로 태어나고 소처럼 산 사람은 소로 태어나고 벌레같이 산 사람은 벌레로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벌레로 열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면 다음 생에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맨 끝에는 신(부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열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합니다. 지금 죽이는 벌레나 짐승이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생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다음 삶에서 짐승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윤회 사상이 서구로 넘어가면서 서구 사람한테 “당신 잘못 살면

다음 세상에서 개나 소가 됩니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이런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사람은 죽은 뒤 다시 사람으로만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물론 뉴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진화해서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의 특징은 일단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메바가 나오면 아메바에서 양서류가 나오고 어류가 나오고 조류가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맨 끝에 포유류가 나오고 포유류 중에 제일 질서가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화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종교적인 진화론으로 바뀌면 사람이 끝이 아니고 그다음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이 영성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진화하면 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뉴에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윤회가 나옵니다. 뱀은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가르친 첫째 원리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고 돌 수는 있으나 절대 죽지 않는다는 윤회 사상을 마귀는 가르칩니다.

또 여기에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그들은 무엇이 될까요? 신이 됩니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과 이브가 누구처럼 된다고 말합니까? 바른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God)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신(god)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뱀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만 차지하려 하고 너희에게는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인 뱀이 에덴동산 때부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 윤회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신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마귀는 영성 훈련 같은 것을 통해 사람이 신이 되도록 부추겼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교도들의 신앙 안에는 신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각종 고등 영성 기법이 들어 있습니다.

중산도에서는 ‘공중 부양(Levitation)을 합니다. 즉 사람을 공중에 뜨게 만듭니다.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에서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유체 이탈(Astral projection)을

시도합니다. 또 모든 이교도 문화에서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나 음약을 빨리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들도 이 기법을 받아들여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달달달라!”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무아지경에 이르면 곧 “열반에 이른다.” 혹은 “입신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마귀의 영성 훈련의 하나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마귀의 사주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고, 사람이 각각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는 상대 윤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요즘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나만 옳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 갓난아이를 집에 두고 PC방 다니면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본성의 애정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이상을 가지고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윤리와 도덕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국가로 시작했으나 이제 미국은 진화론을 신봉하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상대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사악한 것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의 바른 정신이 남아 있어서 미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존재하고 가장 악한 것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있고 가장 사악한 사탄주의자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며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다 보니 미국에서는 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초 단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한국도 이 점에서는 미국과 똑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가 득세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근친상간과 같은 일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단 교리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윤희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키우는 아이가 사실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전 세상에서 넘어온 다른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굳어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아기가 전생에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면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대주의에 의해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식하고 알몸 뒤풀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씩씩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하고도 전혀 잘못을 모른 채 경찰 앞에서 키득키득하는 일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회나 진화는 동일한 개념이다!

사탄 마귀가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윤회
2. 영성 훈련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것
3. 상대적인 도덕과 윤리 개념

지금 세상은 마귀의 이런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 얼마 전에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자마자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개념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말하거나 빙빙 돌아서 여러 단계의 삶을 거쳐 나중에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은 영혼과 육의 이중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혼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자체를 가리켜 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은 혼입니다. 물론 사람 안에는 영적 요소, 혼적 요소, 육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구분할 때에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히4:12; 살전5:23).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초적 의미의 사람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정동수라고 하는 혼으로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을 구원한다는 말도 맞고 혼을 구원한다는 말도 맞으며 몸을 구원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영과 혼에 변화가 생겨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위치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옆에 있습니다(엡2:6). 그렇지만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고전15:51; 살전4:16). 그래서 다시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몸, 즉 새로운 몸을 이루어서 완벽한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몸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몸은 아무개 목사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쓰던 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몸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 즉 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혼입니다. 지금 이 몸은 장차 무너지게 될 껍데기 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하다 보니 산소에 가서 땅에 엎드려 크게 절을 하고 술을 부어 올리면서 무덤 속에 진짜로 자기 부모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머니즘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부모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에 있습니다. 무덤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다.

산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쓰던 집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몇 년 지나면 다 썩어서 부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자매들이 다시 모여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형제들 간에 사랑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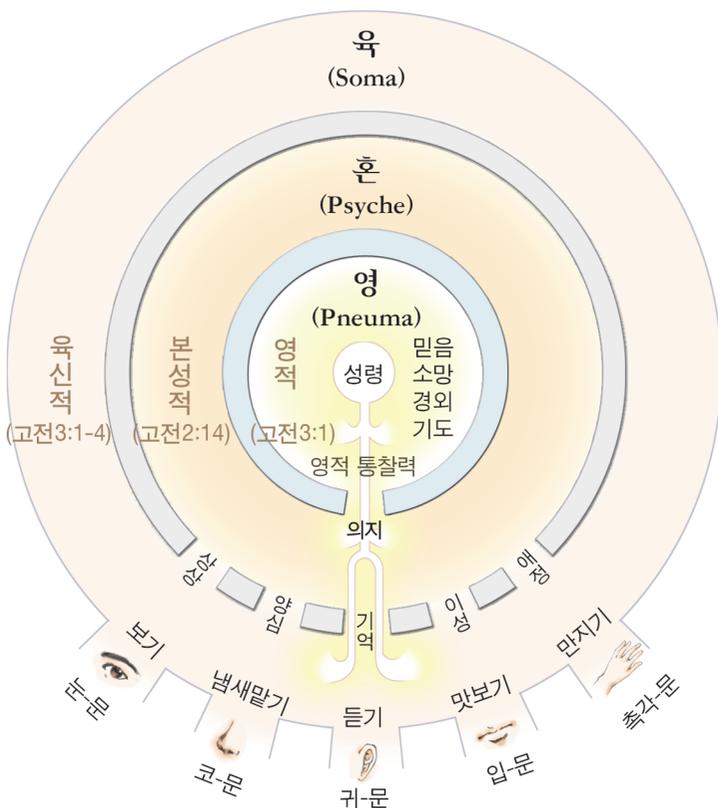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따라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자는 이 껍데기 육체는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사람의 세 요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삿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심판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볼펜을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설계물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정말 설계대로 나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펜 공장에 가서 보면, 볼펜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끝부분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볼펜에 인쇄된 것들이 제대로 인쇄되었는지, 색깔이 맞는지 등을 판단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 따로 모아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은 단지 볼펜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설계하여 만드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다 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되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기 바랍니다.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면 심판이 앞에 서서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심판하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창조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해서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갚아 주려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폄박해도 이런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 영광과 죽지 아니함을 주십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올인’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주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나 윤회론 등을 들고 나와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물론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계20:4-6).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처음에 실패했고 지금 두 번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괜찮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시행착오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문제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절대로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인간의 기본 상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창조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Evidences Of The Existence Of God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¹⁾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초석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자가 되어 일단의 조수들을 데리고 중남미 과테말라의 정글을 터벅터벅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뺨뺨한 초목을 칼로 베어 겨우겨우 길을 열어 가면서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의 뜨거운 열기와 뱀과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눈은 따끔거리고 발바닥은 타는 듯이 뜨겁고 온몸의 근육이 쭉뼉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년도 더 된 덩굴을 헤치고 정글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정글 바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녹색 다이아몬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열대의 덤불에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유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했던 지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즉시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탐사와 발굴이 진행됩니다. 이제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야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탐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 정글 상공을 날다가 바닥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은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여 탐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을

1) 이번 장에서 '창조자 하나님' 부분은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맥스 앤더스 지음, 규장 출판사)에서 인용하였다.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주에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실로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히3:4).

우리는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에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된 둔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은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설명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보다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이유: 지적 창조자의 존재

우주의 질서와 목적은 그 이면에 지적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적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 1:20).

우주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주는 분명한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 부속이 난잡하게 어질러진 상태와 그 부속을 짜 맞추어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난잡하게 어질러진 시계 부속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이 정교하고도 절묘하게 조립되어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존재할 뿐 아니라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정사각형 둔덕은 마야 문명을 암시합니다. 한편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소리칩니다.

셋째 이유: 인간의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셋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롬2:15).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보다 월등하고 다른 짐승보다 지적입니다. 양심을 갖고 있으며 영적인 세계를 느낍니다. 역사의 모든 문명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넷째 이유: 성경의 계시

성경은 자연과 인간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19:1).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과학과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과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의 토대가 된 것은 성경입니다. 저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를 연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리의 내적인 직관적인 인식력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직관적인 생각이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물질적인 것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에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이나 컴퓨터 자료를 조사하는 실험실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들, 이성적인 의심을 압도할 증거들, 방자한 인간의 마음을 설득하여 이성의 의심을 떨치도록 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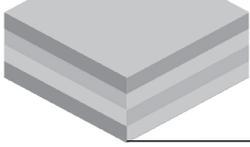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은 곧 또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근거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논리적, 철학적 근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우주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강력한 물질적 증거 역시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대의 유능한 과학자 가운데에도 진화론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진화론이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유일한 대안인 창조론이 자기 입에 맞지 않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그 정교함과 광대함과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와 계속된 진화를 통해 지금의 인간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려면 신데렐라에게 나타나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만들어 준 요정의 마술 지팡이가 필요한데 진화론이 요구하는 마술 지팡이는 바로 시간입니다. 아메바가 하루 사이에 사람으로 변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이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시간이 바로 진화론의 마술 지팡이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허점이 발견되면 자꾸 연대를 늘립니다. 그래서 우주도 처음에는 20-30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200억 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구의 생성 연대’라고 쳤더니 “기독교인들은 과연 지구가 6,000년 전에 생성된 것을 믿는가요?”라는 물음이 있고 이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은 비상식적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우주는 20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생성되었을까요? 지구 역사 6,000년은 정통 유대교인들과 히브리어에 능통한 ‘믿을 만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구(우주)의 연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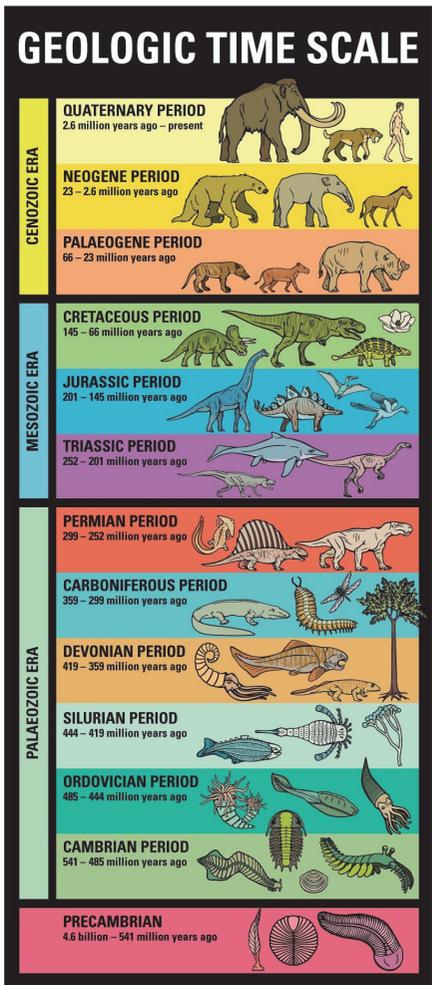
1. 진화론자들의 시계: 지질 주상도

오늘날 진화론과 일반 과학의 주요한 기초 중의 하나는 ‘지질 주상도’(Geologic Column)입니다. 지질 주상도는 퇴적암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화론자들은 그것들이 수백만(억)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6km 정도의 깊이로 많은 지층들을 보여 주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장소는 분명히 지층 기둥들이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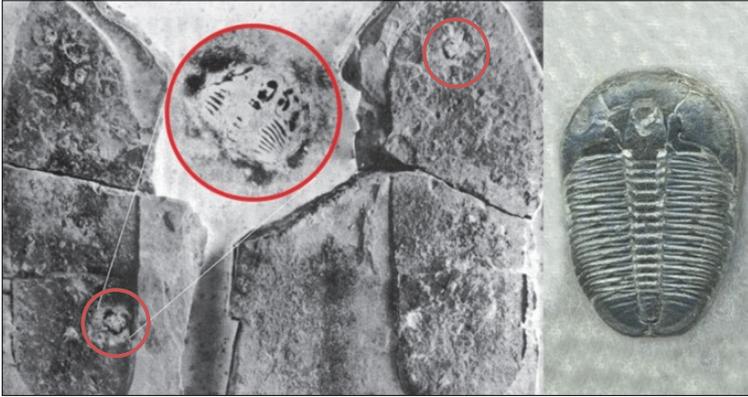
19세기의 지질학자들은 균일론과 생명체 진화가 확고하게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지질 주상도를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구의 연대를 신생대(지금부터 6,500만 년 전), 중생대(6,500만 년 전~2억 2,500만 년 전), 고생대

(2억 2,500만 년 전~6억 년 전), 선캄브리아기(6억년 전~46억 년 전)로 나누고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를 각각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룡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쥐라기는 지금부터 1억 3,500만 년 전에서부터 1억 9,000만 년 전의 시대를 뜻합니다. 이렇게 지질 주상도를 만들면서 이들은 지층 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석 특히 ‘표준 화석’(index fossil)이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쉽게 구별되며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암석의 구성 연대를 결정해 줄 수 있다고 가정했으며 이 같은 표준 화석에 따라 자기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층을 배열했습니다.

그 결과 좀 더 단순한 화석, 즉 그들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처음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여긴 생물의 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지질 주상도의 맨 아래쪽에 배치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진화되었다고 생각한 생물의 화석, 즉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맨 위쪽에 놓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지질 주상도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이 생물체의 진화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지질 주상도를 만든 뒤에 지질학자들은 어떤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면 그 화석이 주상도의 어느 기간의 표준 화석과 일치하는가 살펴보고 그 지층의 연대를 주상도의 연대로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삼엽충류는 고생대의 캄브리아기에서 오도비스기의 표준 화석이므로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층은 지금부터 5-6억 년 정도의 연대를 갖게 됩니다.¹⁾



1) 김명현 교수의 진화론과 창조론 자료를 보면 표준 화석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actionmancry/222516401575>
 “네이버 백과사전의 설명: 표준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짧은 기간 동안만 살았던 동식물 등의 화석이 적당하다. 표준 화석은 일정한 시기에만 번성했던 동식물 등의 화석이기때 퇴적암에서 발견될 경우 그 화석을 포함한 층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준 화석으로는 암모나이트, 삼엽충, 매머드, 공룡 등이 있다.”



5억 년 전의 삼엽충이 사람의 샌들에 눌린 채 발견됨

유튜브: <https://youtu.be/os4CzJHf9dg>

'500 Million-Year-Old Human Footprint Fossil Baffles Scientists'

그러면 지질 주상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렛대로 저울을 삼고 한쪽에 돼지를, 다른 쪽에 돌을 놓아 수평을 만들면 결국 돼지의 무게와 돌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일 돌의 무게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지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질 주상도의 문제입니다.

지질 주상도는 사실이 아닌 '순환 논리'(circular reasoning)에 근거한 믿음 체계를 도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순환 논리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암석의 형성 시기를 연대순으로 정하게 된 유일한 기초는 암석에 포함된 '표준 화석'이란 화석입니다. 또한 각각의 화석이 특정한 시대를 나타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화론자들이 가정한 소위 '생물체의 진화론적 진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화석의 기록만이 생물학적 진화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진화라는 가정이 표준 화석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에 의한 표준 화석의 순서가 진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결국 "진화에 대한 주된 증거는 진화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들이 화석의 배열을 완전히 임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화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지질 주상도는 진화나 광대한 지질 연대를 설명하는 데 결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은 과학이 아니며 일종의 믿음 체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명현 교수의 설명: 표준 화석이라는 존재는 없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의 모든 표준 화석들의 동식물들이 버섯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심지어 사람들의 흔적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유명한 고생대 표준 화석인 삼엽충은 5억 년 전 생물이라고 배우지만, 현재도 버섯이 잡히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 샌들에 눌린 삼엽충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샌들 발자국은 1968년 유타주 델타시에서 북서쪽으로 4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발자국 중 하나이다. 발가락과 발꿈치 쪽에 두 마리의 삼엽충(Acastoidea trilobites)이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지질 주상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진화론자들의 도식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질 주상도는 단지 진화론을 신봉하는 지질학자들의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체계로서 헛된 생각에 불과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실제 화석층 시리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암석의 형성은 이같이 이상적이고 상상적인 순서와는 정반대로 이루어졌으며 암석과 암석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시간의 간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진화론자들이 신봉하는 지질 주상도의 절반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지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지질 주상도가 적합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되며 진화론자들이 제안한 지질 주상도 내의 이상적 순서가 틀림을 깨닫게 됩니다.

2. 과학적(?) 연대 측정

연대 측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측정한 것은 대단히 정확하며 편견이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학 분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장비를 가져다가 정교한 설비로 분석하기 때문에 화학 분석 자체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화학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연대를 해석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기본 가정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학 분석 결과로 계산된 연대도 틀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분석 결과 중 많은 것이 발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연대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

모래시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위에 남은 모래와 밑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라늄이 어떻게 납으로 변해갔는지 그 양을 측정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로 모든 납이 우라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라늄과 납의 양을 같이 사용해서 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데는 세 가지 기본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기 조건을 알든지 아니면 가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석에서 측정하고 있는 납이 처음에 전부 우라늄이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납이 원래 모두 우라늄이 아니었다면 필연적으로 연대 측정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우라늄이 얼마였고 납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하려면 초기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측정 대상이 ‘밀폐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폐계’라는 말은 모래시계의 경우처럼 시계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외부에서 안으로 모래를 넣거나 거기에서 모래를 밖으로 빼낼 수 없는 계를 뜻합니다. 암석 안에 들어가 있는 우라늄이나 납이 수백만 년 동안 외부로부터 투입되거나 외부로 유실되지 않아야 ‘밀폐계’라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의 암석층이 고립계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방계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유동성이 있어서 지하수를 타고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암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석층이 고립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연대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우라늄의 붕괴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해야만 그 양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듯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시간도 일정해야 연대를 바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억) 년 전에는 과학자가 없어서 그 당시 우라늄이 붕괴하는 속도를 아무도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의 우라늄 붕괴 속도를 측정해서 그 속도가 과거에도 균일하게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 이것은 보통 균일론이라 불린다 - 지구의 생성 연대가 150억년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대학교에서 물리 시간에 10년 정도 실험을 하고 그것을 균일한 비율로 수십억 년 동안 연장해서 어떤 답을 유도해 내면 금방 교수가 그 답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통계학적으로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구의 나이가 140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돌덩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설계자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요? 100년 정도 측정만 뒤 결과를 연장해서 140억 년이라는 답을 낸 것과 설계자가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요? 어쨌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려면 위의 가정들이 성립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가정들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학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4. 방사성 탄소(C14)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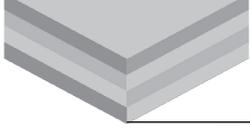
연대 측정과 관련하여 방사성 탄소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14(C14) 방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안정된 탄소(C12)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6개씩 갖고 있고 분자량은 12이지만, 방사성 탄소(C14)는 양성자 6, 중성자 8로 분자량이 14입니다. C14는 공기 중의 질소(양성자 7 + 중성자 7)가 우주선에 부딪힐 때 생성되며 이것은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CO₂)가 되고,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으로 식물체에 고정되고, 그 식물을 섭취한 동물의 조직에 일반 탄소와 전혀 구별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높은 상공에서 만들어진 C14는 결국 낮은 대기로 내려와서 생물계에 흡수되며

이렇게 해서 C14는 공기에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한 항상 C1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는 더 이상 C14를 섭취하지 않으며 C14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C14는 반감기가 5,730년인데 반감기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안에는 C14와 C12가 일정 비율(현재 C14/C12의 비율은 1/1,000,000,000,000임)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이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돼 이때부터 'C14 시계'가 작동합니다. C12는 방사능이 없기 때문에 일정량이 계속 남아 있지만 C14는 방사성 붕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C12와 C14의 비율을 측정하면 사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는 공개된 과학 잡지의 결과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극에서 금방 죽은 물개의 연대를 C14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1,300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측정한 결과 연대가 1,000-2,000년 정도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바다주 남부 사막에서 살고 있는 달팽이의 껍데기를 측정한 결과 연대가 27,000년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생물은 C14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C12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두 전문가는 C14 방법에 따른 결과가 이론과 맞으면 책에 내거나 보고하고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밑에 주석으로 달며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면 버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소위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 역시 편견의 소유자로서 결과가 자기가 믿고 있는 이론과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간단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기록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생성되는 순간에 그것을 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의 주장은 그랬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전에는 ‘시간(time)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 시점부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차원의 시간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과거의 영원’이 있었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이후에 ‘시간’이 마감되면 다시 ‘미래의 영원’이 오게 됩니다. 영원(eternity)은 무한하므로 유한한 사람이 ‘영원’을 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원’이 어떠한지 어렵듯이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하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창조와 진화는 둘 다 종교이다



Creations and Evolution are Religions

진화론은 종교이다¹⁾

미국 내 인본주의 단체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호주 무신론자 협회(Australian Skeptics)의 남부 지부가 발행하는 「남부 회의론자」(*The Southern Skeptic*)라는 공식 월간지는 1985년 가을에 발간된 잡지에서 호주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 과학 사역에 대한 공격을 30페이지나 가득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창세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과학적 이론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얼마나 영리하게 사용했는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창조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없다.

우리 같은 창조론자들을 가리켜 종교적 집단이라고 말하며 창조론 전도 사역을 맹렬히 공격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상 스스로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비록 모든 증거가 창세기의 기록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창세기가 권위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또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은 대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너그럽습니다.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철학입니다.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모두 종교적 관점이며 이 관점 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 과학 혹은 역사의 특수한 모델을 세우려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진화와 창조의 문제는 ‘과학 대 종교’가 아니고 ‘종교 대 종교’ 혹은 ‘한 종교의 과학 대 또 다른 종교의 과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진화론자인 도부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 1900-1975)는 「미국 생물 교사」(*The American Biology Teacher*) 잡지 1973년 3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샤르탱(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²⁾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 1) 이 글은 호주의 과학자 켄 햄이 지은 「진화론은 거짓말」(*Lie: Evolution*)에서 인용하였다.
- 2) <위키 백과>,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탱> 항목: 샤르탱은 천주교 예수회 수도사 출신의

진화론은 모든 사실을 밝혀 주는 빛이며 모든 사상 체계들이 따라야만 할 경로이다.

물론 크리스천에게는 이 같은 진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요8:12)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2장 5절과 22절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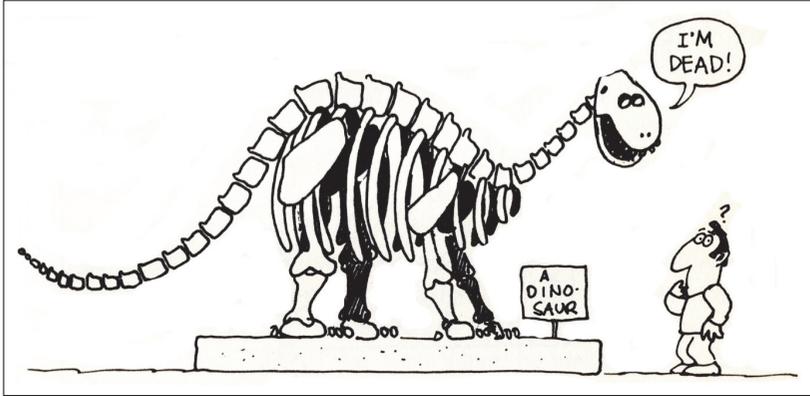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사2:5, 22)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과학은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을 통해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체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진보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수백 년을 살았던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생존하는 과학자 중 윈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던 과학자도 물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생존하는 과학자 중 어느 누구도 100억 년 혹은 200억 년 전에 발생했다고 진화론자들이 가정하는 대폭발(Big Bang)을 본 적도 없고 지구가 45억 년 전 - 심지어 1만 년 전 - 에 형성되었음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목격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 재현될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소유한 증거들이란 단지 현재 존재하는 것들뿐입니다. 모든 화석들, 살아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 세계, 온 우주는 현재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란 단지 현존하는 것만을 연구할 뿐이며 직접적으로 과거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진화론이란 그 당시 그곳에 살지도 않았으면서 현재 있는 증거들(즉 화석, 동물, 식물 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기초한 ‘과거에 대한 어떤 신념 체계’입니다. 실제로 웹스터 사전은 다음과 같이 종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 열심과 믿음에 의해 지탱되는 근거, 원리 혹은 신념의 체계

카톨릭 신부로 프랑스 관념주의 철학자이다. 고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로 훈련을 받은 그는 베이징 원인과 필트다운인의 발견에 참여했다. 그는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라는 활력주의 이념을 고안했는데 그에게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가 그곳을 향해서 진화해 가는 최고 수준의 복잡성과 의식이다.



물론 이 같은 정의는 진화론에 딱 맞는 매우 적합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진화론은 하나의 신념 체계, 즉 종교입니다!

우리는 결코 7,000만 년에서 2억 년 전에 산 것으로 추측되는 ‘공룡 시대’ 그 자체를 지금 발굴해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공룡을 발굴해 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룡을 발굴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우리는 유리 케이스 안에 깨끗이 정돈된 뼈조각들과 그 외 다른 화석들을 보게 된다. 종종 이런 뼈조각들과 화석들은 그 당사자 동물들이 살았을 당시의 자연 환경 안에 존재했던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연구한 미술가들의 상상력을 표현해 주는 그림들과 더불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발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화석만을 발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화석들은 현재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테즈메이니아주에는 수백만 개의 뼈조각을 포함하고 있는 사암층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뼈는 사람의 엄지손가락 끝 관절보다도 작은 것들입니다. 한번은 진화론자들이 어떤 화석 발굴지에 그림 하나를 진열해 놓았는데 그 결과 거기를 찾은 관광객들은 ‘수백만 년 전에’ 그 지역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 뼈조각들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 과학자들이 그려 놓은 그림은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그림은 단지 그들의 편견을 그려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바람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나는 학생들에게 화석 지층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퇴적층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았는지, 함께 죽었는지, 또는 함께 묻혔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대답하는 바가 올바른 과학적 연구와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뒤 그 문제에 대해 골몰히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물체들이

함께 살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모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물체들이 함께 죽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생물체의 화석들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재 함께 매장되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화석이 발견된 장소에서 캐어 낸 것들로부터 그 생명체가 살았을 당시의 환경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체계 내에서 참으로 크게 강조되어야 할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기원을 포함한 어떤 것들에 대해 정확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모든 증거들을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는 자기의 결론 중 그 어느 것도 옳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후에 발견될지도 모를 그 이상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 같은 증거가 그의 결론들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실제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100%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에서 상영되는 미스터리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만 보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누가 그 범주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큰 저택의 관리인이 범인일 것입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가 가까워지면 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끝나기 3분 전에 당신이 그때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이것은 당신의 결론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범인은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느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골2:3)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딜레마에 종지부를 찍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계시해 오신 것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때가 되면 우리는 좀 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실 것이지만 결코 자신의 말씀이 이미 보여 주신 것을 바꾸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과학자도 모든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의 이론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자신들의 결론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다음은 경제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수년 뒤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 있는 교수를 방문한 어떤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험 문제를 자신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아 본 문제들이 학생 시절에 자신이 풀어야 했던 문제들과 사실상 똑같은 것을 알게 되어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문제는 같지만 지금의 해답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교수가 말한 사실입니다.

나는 언젠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온 지질학 교수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들을 계속해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진화론은 실질적인 과학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창조론자들의 관점은 이미 성경에 의해 고정되었고 따라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들이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든 증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옳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결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실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논리에 붙잡히고 말았으며 자신의 견해가 이미 편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창조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과학의 모델이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신념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적 모델들(해석이나 혹은 이야기들)의 근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체가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신념과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는 포함될 필요도 없다는 자신들의 실제적인 신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진화론은 그들이 믿기로 결정한 그들의 믿음 체계, 즉 종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 즉 신념 체계이며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론도 종교이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란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신앙(믿음)으로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고 주장하는 그분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사람들을 감동시켜 자신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적합한 근거하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론자의 관점에 대해 자세히 정의를 내리려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삼중 역사관, 즉 ‘완전한 창조’,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개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옛세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우주)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無)로부터 창조하셨다. 각각의 창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과업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창1:31). 당시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다. 사람과 동물은 모두 채식을 했고 지구의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온화했으며 영양분이 풍부히 담긴 이상적인 지하수가 있었고 어디서도 폭풍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었다.
2.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을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쟁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처음 창조를 저주하셨다. 다윈(Charles Darwin)은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투쟁을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라고 말하며 창조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론을 내놓았다. 진화론자들은 유전 현상 내에서의 우연한 변화인 돌연변이를 자신들의 가설에다 덧붙였다. 그렇지만 죽음과 우연은 결코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못하며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질병, 결함, 죽음, 쇠퇴 등을 가져올 뿐이다. 인류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지구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계를 멸망시키고 방주 속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 홍수로 인해 세계 도처에 운반되어 쌓여진 암석층에 매몰된 수십억 개 사체의 화석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3. 홍수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을 우위에 놓으려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 온 세계가 다시 한 번 폭력과 부패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을 고치며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이 세계는 앞으로 불에 의해 다시 한 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멸이 없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 기초를 두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이며 유한한 우리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의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한 세미나에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생각의 기초를 세워야 하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소 성난 태도로 한 목사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요?” 그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원리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대 과학은 자동차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을 가져온 현대 과학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시작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같은 이런 기계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법칙을 조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진화론자라면 현대 과학이 성경적 기초에서 생겼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출발한 근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사고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본 원리들과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부터 출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한 대로 판단하려 합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어떻게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권위 밑에서 나아가야 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는 신앙(믿음)이요 종교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진화 역시 하나의 신앙(믿음)이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창조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자기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만약 성경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류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나의 말인가요, 당신의 말인가요, 다른 누구의 말인가요? 어떻게 당신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미나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창조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대폭발, 즉 빅뱅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연의 산물이고 임의의 한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당신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당신의 두뇌 역시 우연의 산물이지요 따라서 당신의 논리를 결정한 생각도 역시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논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제대로 전개되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지요. 당신이 당신의 논리를 신뢰할 수 없기에,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하였는지도 당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내게 다가와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이 무엇이나고 묻고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절대자 없이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지닌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증거가 현재에도 적합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해 주는 창세기를 읽어 보면 어느 누구라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진실이라면(이것은 창조에 관한 우리의 과학적 모델이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치하는가 알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각각의 종류대로 혹은 그룹별로 창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과 식물이 각각의 종류대로 발견되어야만 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종은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의 변화가 없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해 온 사실입니다(현존하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화석에서까지도).

창세기는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증거가 발견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아마도 물과 큰 재난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 수십억 개의 사체가(화석) 암석층에 묻혀 매장 당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건이 일어났었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통해 얻어진 증거는 과연 이것에 적합한가요? 다시 한 번 그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입니다.

모든 인류는 서로 다른 민족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수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같은 종류입니다. 인류는 모두 같은 피부색을 가졌습니다. 유전학자들은 모든 인류가 한 가지 피부색을 갖고 있으며 단지 색의 짙고 옅은 면에서만 서로 다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온 인류가 같은 조상인 노아(궁극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라면 모든 문화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에서 분리된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서로 다른 ‘인종’(race)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종’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슬프게도 진화론자들은 이 용어를 ‘다른 종족만큼 진화하지 못한 인류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인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들은 이미 진화된 종족(예를 들면, 백인)에 의존하고 있는 낮은 수준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예를 들면, 흑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와 대중 매체를 통한 진화론적 가르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종’이라는 용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흔히 인간 종족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인간들이 여러 인종이 아니고 한 인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행17:26)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은 대개 그 기원에 대한 전설이나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거의 창세기 같은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대다수 문명은 노아의 대홍수와 유사한 대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자를 창조하는 모습, 죽음의 도래, 사람과 동물이 원래 채식성이었다는 것(창1:29-30) 등을 포함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세계 도처의 여러 문명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수되었다는 사실에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관한 가장 참된 설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문명에서 발견된 유사점은 결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기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고대 바빌론의 전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설들이 창세기와

비슷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기원 신화를 차용했기 때문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는 바빌론의 전설이 모든 면에서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히 차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수에 대한 바빌론의 전설은 신(神)들이 서로 상대방을 반으로 잘라 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홍수에 관한 성경의 설명이 그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한번 읽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수되면서 세심하게 보존되기 어렵습니다(특히 말로 전달된다면).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들은 대개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후대의 이야기는 현저하게 왜곡됩니다. 그에 반해 성경기록은 필사본으로 전해져 왔으며 하나님의 세심한 주의로 인해 지금까지도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참된 기록임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바빌론의 신화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된 전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초로 삼고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현존하는 증거는 모두 들어맞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증거가 서로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현재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둘은 모두 서로 다른 과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철저히 다른 분석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말은 결코 창조론자가 모든 사실에 대해 항상 정확한 설명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자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사실 이 세상에는 명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성경기록이 정해 놓은 기본 골격에 들어맞아야만 하며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과학자가 일어서서 내가 한 말을 믿지 말라고 회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로서 노아의 홍수와 창조는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과학은 성경이 거짓임을 이미 증명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회중에게 말을 했기에 나는 그에게 노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역사상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재차 그가 노아의 홍수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왜 그가 그것을 못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에 대홍수가 없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대답은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는 성경을 믿지 못하면서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대홍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증거는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기술 분야에 관련된 가정이나 전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성경이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자신이 언급한 과학적 방법 중에는 상당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설명은 그의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과학이 정확히 증명해 줄 때까지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의 본질’과 ‘과학은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를 두고 모든 증거들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으로만 여겼고 또한 그것이 과학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뒤 항상 자기들의 이론을 수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빅뱅 연대는 계속해서 수정되고 또 수정되고 있습니다.

공립 학교 체계 안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공립 학교에서 창조에 대해 처음으로 가르쳤을 때 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보여 주고 여러 증거들이 어떻게 창조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보여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화론을 믿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다른 수업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증거들을 진화론적 방법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소위 ‘증거들에 의거한 접근 방법’, 즉 증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진화론이 거짓이며 창조가 사실인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뒤 나는 방법을 바꾸어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며 결국 과학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 학생들은 어떤 증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학자들이 전제 조건,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학생들과 나는 성경에서 말한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 밖의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같은 골격하에서 어떻게 과학적 모델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들이 진화론적 골격이 아니고 창조의 골격과 부합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부터 소위 ‘전제 조건에 의거한 접근 방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수업에 들어갔고 그곳의 교사는 같은 증거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교사가 그렇게 말하게 된 배후에 깔린 가정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보는 관점이 교사의 믿음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원의 문제는

이미 과학적인 증명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교사들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한 젊은 여교사는 내게 와서 심술궂은 어투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감을 내가 무너뜨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교사는 석탄이 수백만 년 전 늪지대에서 형성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나는 석탄이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마치 늪 이론만이 석탄 형성의 사실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신뢰감에 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화가 났던 이유는 학생들이 결코 예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화 또는 창조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 전제와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철학적 부분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그 해당 주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더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강조하는 ‘전제 조건에 의거한 접근 방법’으로 수업을 한 뒤에는 학생들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에 의거한 접근 방법’만으로 수업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은 대개 이런 질문만을 합니다.

“탄소 14의 연대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과학자들은 화석이 수백만 년 전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나요?”, “확실히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무(無)에서 어떤 것이 생길 수 있겠죠?” 등등.

그러나 ‘전제 조건에 의거한 접근 방법’, 즉 논의의 주제를 기본적 믿음의 단계까지 끌고 가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그 변화는 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왔나요?”, “당신은 어떻게 성경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누가 성경을 썼나요?”, “왜 기독교 신앙이 불교보다 나은가요?” 등등.

학생들은 참된 주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같이 과학의 한계를 보여 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결과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몇몇 개종자들이 기독교 신앙(믿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반 대중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창조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모두 같은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런 똑같은 사실들, 즉 증거들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 그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논쟁의 실체를 알기 시작합니다.

진화와 창조라는 두 신앙(믿음) 체계, 즉 두 종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증거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창조론자들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증거 제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캔자스주의 크리스천 대학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비슷한 소재와 더불어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사용하여 강의를 마쳤을 때 앞쪽에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창세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의 지질학과 교수는 진화론을 믿으며 따라서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여기 있다면, 비록 내가 이 순간에 그를 발견할 수 없지만, 당신이 강의한 것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금방 지적할 것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지질학과 교수가 여기 있어서 내가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했을지라도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는 틀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그의 주장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 줄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질학과 교수의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창조론을 믿는 지질학자를 데려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크리스천은 성령님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확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오하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성경에 의심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다면, 또 만약 성경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과 믿는 것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다시 재해석된다면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초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참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와 진화론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 -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포함 - 이 진화론을 성경에다 덧붙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출현이 하나님께서 진화론적 과정을 사용하신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과 모순이 됩니다. 다음은 창세기와 진화론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1.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

진화론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에 - 아마도 수백만 년 전에 - 이미 많은 생물들이 살다가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서로 싸우고 투쟁했으며 죽이고 죽임을 당했으며 그 당시의 세상은 공허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진화의 역사는 바로 죽음의 역사이며 진화론은 죽음이 처음부터 있어 왔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특히 사람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 죽음은 단지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참조 고전15:21-22; 창3:22-23).

그러면 동물들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이 처음 창조된 동물 세계에 이미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뿐 아니라 동물의 죽음도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동물들이 나이 들어도 죽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와 노화 현상이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죽는다는 것은 동물의 몸이 닳아 없어지고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니니(롬 8:20-22)

그런데 이런 것은 죄가 있기 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말씀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땅이 옷같이 낡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살아 있는 동물을 포함한 전 창조 세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지금까지 ‘부패의 종노릇’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나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죽여 먹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은 식물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창1:29).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므로 동물들은 살생을 목적으로 서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¹⁾

2. 아담은 결코 진보하는 방향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크리스천들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완벽했음을 의미합니다. 타락의 결과 아담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전체 창조 세계에 일어난 무서운 일들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롬 8:22)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과 개미, 코끼리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전체 창조 세계를 저주하셨습니다(창3:14, 17). 그래서 창조 세계는 완전한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로 옮겨졌고 그 저주의 결과로 그때부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보통 열역학 제2법칙이라 불림).²⁾ 그런데 진화론의 신념은 모든 것이 점점

1) 창세기 9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육식을 하고 사자, 호랑이 등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뒤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에는 다시 에덴동산에서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육식 동물도 초식을 하고 사람의 수명도 1,000살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가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기가 백 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백 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사65:20, 25)

2) 열역학 제2법칙: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무질서도)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가역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산 백과>. (*)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되고 아메바가 원숭이를 거쳐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질서도가 낮은 상태에 있는 존재가 질서도가 높은 존재로 바뀐다는 것인데 열역학 제2법칙은 이것이 우주 공간에서 불가능함을 규정한다. 즉 돌덩어리에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수십억 년 동안 외부에서 무언가가 주어져도 돌덩어리는 결코 아메바 같은 생물체가 될 수 없다. 물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진리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진화론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세뇌되었다.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 가설에 따르면 생명체는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더 지적인 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설대로라면 인간은 점점 더 나빠져서는 안 되고 점점 더 발전해야만 합니다. 아담이 진화 과정 중의 한 부분이었다면 과연 그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적/생물학적 구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퇴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유전자 내에 있는 오류들은 생리학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새 하늘과 새 땅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행 3:21).

이 말씀이 보여 주듯이 성경은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은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시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위의 구절은 천년 왕국에 대해 말함).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몹시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1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할 천년 왕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 줍니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 떤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사11:6-9).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때에 짐승들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지 않을 것이며 식물만 먹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격렬한 다툼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

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계21:3-5)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일어날 이 일들은 결코 오늘날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때', 즉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때를 보여 줍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창조 세상에는 죽음이나 난폭함이 없었고 동물들이 채식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대의 창조 세계 안에 무엇인가가 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전 모습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이런 회복이 왜 필요한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음, 투쟁, 폭력이 과연 회복입니까?

4. 처음에 사람과 동물은 채식만 하도록 창조되었다

오늘날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많은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 역시 동물의 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시인은 현시대 동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폭력을 가리켜 '이와 발톱이 피투성이를 만드는 본질적인 잔인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투쟁을 고상하게 '적자생존'이라고 부르며 이런 투쟁을 진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아마도 육식 동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진화를 위한 투쟁 속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29-30).

처음에 사람과 동물은 채식만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죄가 없었다는 사실과 잘 일치합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죄악이 세상에 심히 만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대홍수를 보내어 온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6:12-13).

이 같은 포악함으로 인해 동물들이 서로를 죽이고 아마 사람도 죽였을 것이며, 그와 반대의 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라(창9:2-3).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뾰족한 치아를 갖고 있음을 보고 그것들이 원래 육식 동물로 창조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채식만 하는 많은 동물들도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동물들의 치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식물을 먹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타락의 결과로 어떤 동물들은 이제 육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타락의 때와 마찬가지로 장래 회복의 때에도 음식 습관과 관련하여 생물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5. 창조는 이미 끝났다

성경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작업을 마쳤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창2:1-3).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여섯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서 끝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화해와 구속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에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 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일한 진화 과정이 자기들이 가정하고 있는 진화론적 창조 세계 안에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자연 세계 속에서 돌연변이(유전자 내의 실수나 변화)와 자연 선택(적자생존) 등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진화론 구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가 생명체를 한 종류로부터 다른 종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한마디로 오늘날 자기들이 관찰하고 있는 과정들을 이용하여 과거를 추측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이 넘게 걸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진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 ‘창조’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진화가 과거에 발생했었다고 말하기 위해 과거를 추측해 볼 근거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진화론은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크리스천이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진화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진화를 통해 창조하고 계시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이미 끝마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난제입니다.

6. 아담은 흙으로부터 이브는 갈비뼈로부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사용하셔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액면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이브는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2:21-23).

인류 최초의 여인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창2:7에서 나오는 ‘흙’(dust)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셨던 화학 성분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창2:7이 진화론에 대한 요약 곧 화학 성분으로부터 인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흙에서 아담을 창조한 것이 화학 성분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뜻한다면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대해 적당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브는 흙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창조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7. 흙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창2:7의 ‘흙’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혹은 사람의

조상)으로 만든 어떤 짐승(예를 들면 유인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셔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유인원이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9).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려고 사용한 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려 하셨을 때 사용했던 유인원 같은 창조물을 뜻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우리 인류를 만드는 데 사용된 흙은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죽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동물로 되돌아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죽게 되면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땅의 흙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선하시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상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것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시편 25편 8절은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가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존재하던 창조 세계는 선하신(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때 -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 예들을 봄으로써 - 우리는 그분께서 병든 자를 돌보시며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신(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약한 자들의 소멸, 적자생존,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투쟁, 부적합한 자의 소멸 등과 같은 진화론의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쓰셨으며 또 이것들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이용하셨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분을 살인마 도깨비로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9. 창세기는 정확한 역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는 단지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창세기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며 실제로 거기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거의 다 상징적인 단어들로 쓰였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는가?

물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단지 상징적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또한 상징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는 단지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상징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만일 창세기가 상징에 불과하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구절들은 어떤 것의 징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갈빗대에서 이브를 취한 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실 이것은 아무런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절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혹은 그 안에 아무런 목적도 없으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지내든지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10. 성경의 모든 교리는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 연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교리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원에 관한 책인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19:4-6에서 우리는 결혼과 관련된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마19:4-6).

결혼은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첫 번째 결혼은 아담과 이브의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원이 적혀 있는 책인 창세기에서 문자 그대로 결혼의 기초와 기원에 대해 이해하고 그대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 그리고 죄의 대가인 피 흘림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원과 근원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안에 기록된 교리들의 근원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일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근원도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다른 교리들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1. 신약 성경은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창세기를 참 진리로, 정확한 역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적어도 165개의 문단이 신약 성경에 직접 인용되거나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개 이상의 인용문이나 직접적인 참고 구절이 창세기 1-11장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글에서 창세기 1-11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11장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 창세기만큼 많이 인용되거나 언급된 책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안에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또한 신구약 성경의 기록자들 모두가 창세기를 진리로 믿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적어도 여섯 번이나 창세기 1-11장에서 어떤 구절을 인용하거나 언급하셨습니다.

12. 창세기의 ‘날’은 결코 수백만 년이 될 수 없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창세기 ‘6일 창조’의 여섯 날들의 하루하루가 실제로는 지구 역사의 수백만 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백만 년(혹은 수십억 년)을 의미하는 여섯 기간에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증명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연대 측정법의 배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성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믿음(성경적 창조론)과 일치하는 과학적 증거들도 많이 있으며 또한 성경은 창세기의 ‘날’(day)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실제의 하루(24시간)’라고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에 대한 히브리어는 ‘욘’(yom)인데 이것은 보통의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해지지 않은 시간의 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쓰인 ‘하루’라는 단어는 결코 한정적인 의미에서의 긴 시간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단어가 하루보다 긴 어떤 것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단지 무한한 기간을 가리킬 때뿐입니다(예를 들면 ‘재판관들의 시대 이후로’(from the days of the judges, 왕하23:22),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사13:6) 등).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six days)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한 안식의 예로서 하루(a day)를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11).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 위해 ‘6일’(six days)이라는 시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1주일을 7일로 정하셨고 오늘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규칙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육백만 년 동안 일한 뒤 백만 년을 쉬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섯 개의 무한한 시간의 주기 동안 일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쓰인 ‘날’(days)이 평범한 하루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을 지나 930세가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만일 각각의 날이 수백만 년이었다면 아담의 나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를 천 년에 비기고 있는 뱌후3:8은 창조 때의 하루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뱌후3:8).

뿐만 아니라 ‘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될 때는 결코 상징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든 맨 처음에 문자 그대로의 실제 의미로 정의된 뒤에야 비로소 상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며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의된 의미가 그 단어에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처럼 ‘저녁’과 ‘아침’의 뜻으로 쓰인 단어들 역시 정확하게 저녁과 아침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the evening)과 아침(the morning)이 첫째 날(the first day)이니라(창1:5).

13.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는 ‘그것들의 종류대로’ 혹은 ‘그것의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동물과 식물이 땅에서 스스로 번식해야 함을 규정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식물의 종류를 고정하여 창조하셨고 각 종류는 그것의 종류대로만 번식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임니

다. 어떤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1-12).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종류 내에서 변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고정된 테두리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식물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름을 붙이는 분류 체계는 근본적으로 린네(Carl Linnaeus, 1707-1778)의 연구 결과인데 이것은 종이 고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형식화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현재 살아 있는 생물이나 화석 중에서 명백한 진화의 중간 형태를 보여 주는 생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동식물의 서로 다른 종류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중간 형태의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가적인 이론들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우리는 아직 그런 형태를 발견하지 못했다.” 혹은 “진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 형태의 생물체를 남겨 놓지 못했다.” 등).

14. 진화론과 창세기의 창조 순서는 매우 다르다

진화론을 창세기와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은 먼저 진화론에서 말하는 사건의 순서와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의 순서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진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창세기의 창조 순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어류를 만드셨다고 창세기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류보다는 과일나무가 먼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어류가 과일나무보다 먼저 출현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진화론은 처음으로 생물이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수백만 년이 흐른 뒤에 땅 위에 생물이 나타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처음에 물로 덮여진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화론과 창세기가 말하는 사건의 순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방법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 창조를 이루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15.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지구의 시작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약 200억 년 전에 대폭발(Big Bang)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태양이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에 지구가 고열로 된 용융체로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된 그 처음에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태양은 아직 없었다고 말합니다.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으나 태양이 빛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물에 의해 덮여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6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는 처음의 땅이 물로 덮여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탄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벧후3:3-6)

사실 창조에 대한 대폭발 이론과 성경적인 설명은 완전히 모순됩니다. 다음은 빅뱅의 모순에 대해 ‘하나님이 계신 과학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한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한 것입니다.

창조론을 거부하는 자들, 즉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빅뱅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그 빅뱅을 생기게 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을 텐데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과 지구가 ‘핑’하고 마술처럼 생길 정도의 파워는 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다는 말인가?”

어떠한 물체가 생겨났다는 것은 열역학 제1법칙에 의거하여 어떠한 물질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물질은 보존되므로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만 폭발로 인해 해와 달과 별들 같은 다른 것들로 변형이 되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초기의 바로 그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는 것이다.

말 그대로 초기 상태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폭발을 일으킬 재료가 없지 않은가?

즉 폭발할 재료가 아예 없다는 말이다.

많이 양보해서 재료가 없는데도 폭발이 생겨났다고 치자.

그러면 그 폭발을 일으키는 힘, 즉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났나?

이런 식으로 지구가 생겨났다고 치자.

그런데 지구에는 중력이 존재하여 지구 안의 모든 물체들이 우주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모두 제자리에 붙어 있으며 심지어 바다의 물들도 여기저기로 날아다니지 않고 암전히 어항 속의 물처럼 지구 안에 붙어 있다. 진화론자들의 빅뱅과 같은 무질서의 현상이 초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빅뱅의 초기 시대를 말한다. 모두가 다 폭발하여 지구 내의 모든 것이 튕겨 나가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이 지구 안에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며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신기하게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과학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과학을 잘 안다고 하는 진화론자들, 수많은 박사들은 이런 아이들보다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그들은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무생명의 돌덩어리에서 생명을 가진 아메바가 나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역시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아메바가 인간으로 변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것은 개미가 인간으로 변했다는 말보다 심한 말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바퀴벌레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로 재미난 일이 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빅뱅’은 성경이 말해 주는 사실이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구를 빅뱅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들이 집을 짓듯 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오른 시간에 걸쳐 우주와 지구를 빚어서 만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곧 참된 의미의 빅뱅에 의한 우주와 땅의 창조를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빅뱅에 의한 창조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빅뱅에 의한 창조는 몇백억 년이런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이다. 진화론자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냥 창조의 시간을 무한대로 길게 늘어 놓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식간에 우주와 지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것에 의해 무신론자들이 결코 풀지 못하는 문제, 즉 빅뱅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느냐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답이 완벽하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창1:3-4).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계22:13).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타파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타당하지 않으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합당하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16.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한 설명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모순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창조에 대한 이 두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면서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의 전반부까지는 창조 기사의 하루하루에 대한 시간적 순서(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에 따른 창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둘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의 어떤 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설명은 창조의 하루하루에 대한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의 타락에 대한 배경을 보여 주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특히 사람과 에덴동산이라는 낙원의 관계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설명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두 번째 설명 부분은 우리가 결혼 관계의 본질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사실 어떤 특정 사건의 기록 앞에 좀 더 일반적인 설명 부분을 위치시키는 기술 형식은 창세기의 처음 두 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구 분포를 보여 주는 창세기 10장 2-32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10절이 바로 그 뒤를 따르는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상의 세 번째 세대에 바벨에서 발생한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5절에서 주목해야만 할 점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완적이며 권위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실제로 그 두 장을 다 인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라는 마태복음 19장 4절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편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라는 마태복음 19장 5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7. 아담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진화되어 감에 따라 처음에는 끄끙거리며 말을 배워야만 했고 나중에야 비로소 글 쓰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사람들이 농사짓기

를 배우고 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소위 ‘진보된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이 ‘원시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우 ‘진보된 사람’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창2:19-20)

창세기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창5:1)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에 관한 일을 자기에게 보여 주셨던 대로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도하에 그것 외의 다른 사건들도 기록하였을 것이고 모세는 후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 창세기를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아는 그 귀한 문서를 배에 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담의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과 놋과 쇠를 이용했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匠人)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창4:21-22).

그들은 결코 진화 과정 속에 존재했던 원시적인 야만인(동굴에 살던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18. 노아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 사건이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구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땅에서 발견된 수십억 개의 화석이 수백만 년 이상 진행되어 온 진화 과정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비율로 천천히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생물체들이 화석으로 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화석은 생물체가 순식간에 지층에 갇히며 큰 압력을 받을 때에 발생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없이 생물체가 오랜 시간 동안 물이나 물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서 분해되어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한때 물에 의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순식간에 많은 생물체들이 지층에 갇혀 말 그대로 생매장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창세기 6-9장의 노아의 대홍수는 이런 화석들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고 말하므로 화석들은 아담의 범죄보다 수백만 년이나 앞서 이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노아의 대홍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의 점진적 변화의 결과로 화석들이 생겼다고 믿는 이들은 보통 노아의 대홍수가 전 세계적 규모가 아니었으며 단지 한 지방을 덮은 소규모 홍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더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창7:19).

또한 우리는 창세기 9장 11-13절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지개로 맺어진 약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때 이후로 많은 홍수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말하는 노아의 홍수는 지역적인 소규모 사건을 말하지 않고 결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전 세계적 규모의 대홍수를 의미합니다.

19. 유신론적 진화론은 무신론적 진화론에다 하나님을 더한 것이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무신론적 진화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속에 더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를 이용하셨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무신론적 관점이 말해 주는 것을 받아들인 뒤 거기다 하나님을 덧붙이고는 성경을 재해석하려 합니다. 인간의 본성, 즉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항하려는 본성, 다시 말해 의인은 없으며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규정한 그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진화론적 관점에 대해 적어도 의심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의 믿음/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처음 창조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지식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이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네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욥38:2-5)

20.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세상에 편재한 몇몇 문화가 진화론적 의미에서 볼 때 좀 더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며 진화론을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좀 더 ‘원시적’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많이 진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전15:45에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14:45).

창조의 관점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인종이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세계의 문화는 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땅 위의 서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백인, 흑인, 황인 등이 사는데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이며,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던 동일한 질문은 우리가 믿으려고 선택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엄숙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수24: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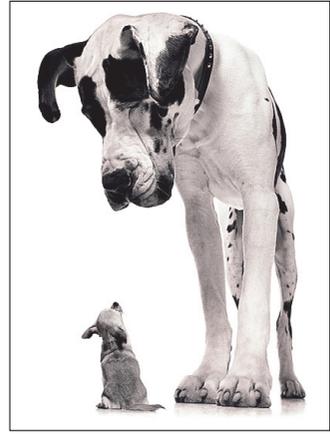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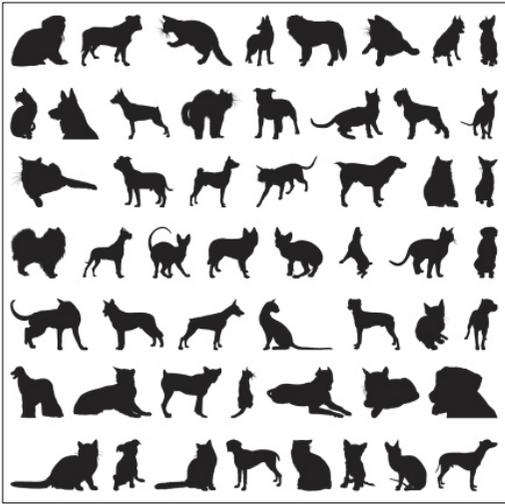
아마도 오늘날 우리도 각각 이와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네가 믿을 자를 선택하라.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 즉 죄로 가득한 창조물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지 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곳에 계셨고 우리가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

21. 인종 이야기: 사람과 개는 왜 다양한가?

사람이 왜 다양하게 생겼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 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쓰인 품종 개량 방법은 사람이 원하는 형질을 지닌 생물 간의 자손을 얻어 이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고 다시 이들 사이에 자손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개는 종류 혹은 품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레이트데인, 세인트버나드, 마스티프 등은 무게가 90Kg이나 나가는 큰 개입니다. 반면에 치와와 같이 무게가 1kg 정도 되는 작은 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 털, 짧은 털, 긴 코, 뭉뚝한 코, 긴 다리, 짧은 다리를 가진 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김새와 크기 등은 달라도 이것들은 모두 같은 염색체를 가진 개입니다(혹은 개과에 속한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품종 개량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개들을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개들도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지역별 품종도 서로 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의 품종은 지역별로 크게 북방 타입, 남방 타입, 유라시아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북방견은 북유럽의 스피츠 품종을 말하며 대표적 품종은 에스키모 개입니다. 이런 종류의 개들은 추운 기후 때문에 중간 길이의 직모를 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풍산개,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스피츠, 재페니즈 스피츠 등이 여기 속합니다.

남방 타입 개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한 개들을 말합니다. 남방견은 북방견에 비해 골격이 가늘고 길며 섬세하기 때문에 날렵하게 생겼고 귀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남방견에는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트데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타입은 알타이산맥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품종을 말합니다. 이 타입의 대표적인 개는 가슴이 두툼하고 폭이 넓으며 사각의 큰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는 마스티프입니다. 이 품종에는 불도그, 로트와일러, 세인트 버나드, 도베르만 핀셔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품종에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개가 나왔습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통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인종'(race)이란 말은 피부색, 눈 모양, 머리카락 등의 육체적 특성이 구별되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러한 의미는 1800년대 후반에 사람들이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인종'이라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세 종의 사람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개의 예에서 보듯이, 개라는 한 종에 세 개의 주요 품종이 있는 것처럼 사실 사람도 한 종 즉 '사람 인종'(human race)이 있고 백인, 흑인, 황인이라는



세 개의 주요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행17:26)

사람들은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유전의 법칙을 이용하여 여러 대에 걸쳐 우성 형질을 개발하면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개를 만들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람도 동일하게 그리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따라 아담과 이브에게서 모든 사람이 생긴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이에 대해 궁금해하곤 합니다. 1987년 <Nature>지에는 여성들에게만 계속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연구한 결과 모든 여성들이 한 여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 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Nature>지에는 남성에만 존재하는 Y 염색체를 연구해서 모든 남성들도 한 남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라는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온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 쌍의 부부로부터 다양한 크기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유전자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다양해질 뿐 아니라, 정자와 난자 등 생식 세포가 형성될 때 유전 정보 자체가 교환이 일어나 그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그 뒤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이때에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바벨탑 근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비로소 이방인들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형성되면서 세계 4대 문명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유전 정보의 교환이 폭넓게 일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떤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은 햇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햇빛의 조사량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집단 내에서 소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품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적도 근처에 살면서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위험에 더 민감하며 따라서 그들은 생식 가능한 시기까지 살아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밝은색의 피부색 유전자를 전달할 기회를 적게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태양 빛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서 형성되는 비타민 D3의 결핍 가능성이 크고 극지방에서 이것은 구루병(rickets)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대가 지난 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적도 지방 근처에, 흰 피부의 사람들은 고위도 지방 근처에 많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선호 역시 품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 한 사람의 문화가 종족 계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각각의 그룹 안에서 우성 인자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열성 인자는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특정한 요소들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리는 현시대에 짐승의 품종을 개량하는 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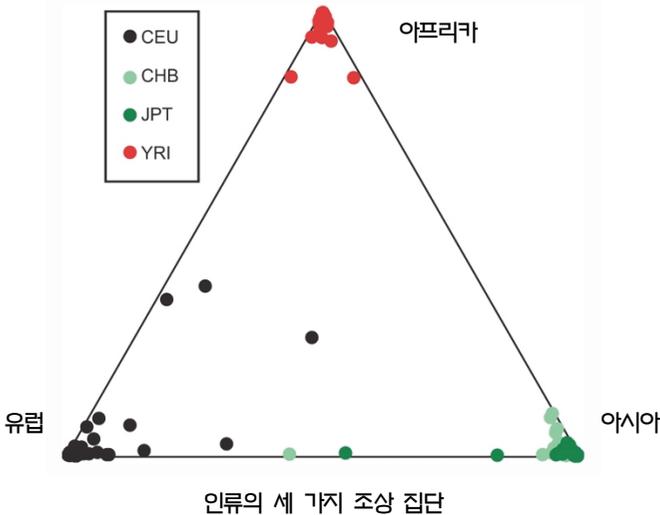
전체 인구 집단(혹은 짐승 집단)은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집단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서 소수가 고립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면 이 새로운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 매우 적은 유전적 특징(또는 유전 형질의 적은 범위)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세대가 흐른 뒤 그 지역에는 원래의 집단과는 유전적 특징이 많이 다른 종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연 선택, 문화적 선호, 고립된 인구 집단 등이 조합되면서 여러 세대를 지나면 자연히 지금과 같이 여러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Nature>지 논문³⁾에서, 과학자들은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네 지역에 사는 270여 명의 DNA 지도를 작성하면서 잃어버렸거나 중복되어 있는 DNA의 부분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문에서 숨겨져 있는 사실(일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음)은 그 표본들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취되었지만

3) Redon et al, "Global variation in copy number in the human genome", Nature 444, 444-454 (23 November 2006) | doi:10.1038/nature05329.

그것들은 세 개의 분명한 그룹 즉 중국인과 일본인의 한 그룹, 유럽인 그룹, 그리고 아프리카인 그룹으로 깔끔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셋을 세 개의 조상 집단이라고 불렀는데 다음 그림은 이 세 그룹이 얼마나 분명하게 확연히 구분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여기서 세 그룹은 각각 나이저리아(Nigeria, YRI), 유럽(Europe, CEU), 일본(Japan, JPT) 및 중국(China, CHB)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창세기 9-11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놀라우리만큼 일치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노아의 세 아들 중 맏이인 야벳의 후손은 유럽으로, 함의 후손들은 남쪽 아프리카로, 셈의 후손들은 일부는 중동에 머물렀고 일부는 북동쪽의 아시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같이 형성된 사람의 세 그룹과 개의 세 그룹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북방, 남방, 유럽 그룹). 사람보다 개가 더 많은 변이를 보이는 것은 개의 경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인위적 품종 개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인위적 품종 개량 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지금처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과 짐승이 출현하였음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믿음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은 인본주의 진화론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허구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특별히 설계해서 창조했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진화론의 허구를 여러 가지 증거와 함께 보여 주려 한다.

진화론은 과학인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철학의 요지는 현대 과학이 생명체의 진화가 사실임을 증명했으며 따라서 창조에 관한 성경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물체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같은 요지에는 치명적 결점이 있다.

실로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찰과 실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오래전에 있었던 온 우주의 생성에 관한 관찰과 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턴의 시대나 그 이후에나 사과는 나무에서 잘리면 밑으로 떨어지므로 만유인력의 법칙은 과학이다. 그러나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고 100만 년 전에 사람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다. 사실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1971년도 판 다윈의 「종의 기원」 서문에서 영국의 생물학자 매튜스(L. Harrison Matthews)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¹⁾

진화는 생물학의 중심 지지력이며 따라서 생물학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 위에 세워진 과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학문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 혹은 신앙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까지 증명된 적이 없다.

과학자들은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관찰할 수 없으며 단지 추측해

1) Matthews, L. H., The Origin of Species, (Introduction by Charles Darwin, J. M. Dent and Sons, Ltd., London, 1971, p. 10.

볼 수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단지 현재에 대해서만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가정, 즉 진화가 이미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거짓이다. 따라서 진화는 기원에 대한 믿음이나 주관적 철학 혹은 많은 과학자들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진화가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지질학에 관한 표준 교과서인 「지구 역사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²⁾

화석 기록은 지구의 생명체가 여러 시대를 거쳐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 즉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화석 잔류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지구의 과거 역사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우세하게 전해 내려온 개념, 즉 극식이며 미신적인 것들 - 즉 성경적 창조론 - 을 타파해 버렸다. 화석들은 생명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간단한 것에서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보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다. 어떤 사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결론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지난온 과거와 지금의 모든 생명체는 아주 간단한 시작에서부터 진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비록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어도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자들도 인간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모두 완전히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흰 가운을 걸치고 있는 엄숙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편견이나 이미 세뇌당한 생각들의 효과, 개인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확신에 의한 영향,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 등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과 교사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과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사실 이 모든 요인들이 진화론을 널리 퍼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떤 과학자들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 위해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을 선택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생명체가 무기 화학 물질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이 우스운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성경의 사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수정했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진화론과 타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참으로 성경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개념을 단숨에 내던져 버릴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생물학적 진화론은 살아 있지 않은 물질이 살아 있는 단순한 구조의

2) Strokes, William, and William Lee, Essentials of Earth Histor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66, pp. 8-9.

조직체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여러 형태의 생물체들이 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믿음에 따르면, 모든 박테리아,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이 어떤 방식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는지 단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지성이나 계획 없이 스스로 일어나고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다. 또 생물학적 진화론의 바탕에서 생겨난 전제, 즉 '분자로부터 사람이 되는 이론'의 전제는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수소 가스가 결국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는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에 의한 초기의 특별한 창조가 있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같은 창조를 통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법칙들, 과정들,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시대마다 거짓 교사들과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대다수의 의견으로부터 나온 주장이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 사실 과학적 진리는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다수의 의견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된다.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종종 그러했듯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진화론 및 성경적 창조론은 둘 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증명될 수 없으며 단지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관찰된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폐기시켜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떤 모델이 더 가능성이 큰가를 밝혀내기 위해 과학적 사실들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은 지적 믿음이 되며 그 안에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과학의 사실들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요즘 제주도의 굴이 제맛을 내고 있다. 굴나무는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서 굴을 만들어 낸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 엄청난 신비가 아닌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사람의 세포 하나가 온 우주보다 더 복잡하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 다만 나의 머리털, 손톱 하나를 보면서 그 안의 창조의 신비에 놀라고 창조자가 있구나 하는 정도의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 은혜로우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주실 것이다.

지구의 생성 연대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진화되기 위해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반면에 성경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6일 동안에 모든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성경대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약 6,000년 전에 창조된 것이 사실이라면 약 200억 년 전에 온 우주가 생성되고 그 이후에 지구가 진화되었으며 약 백만 년 전에

사람의 조상인 유인원이 처음으로 지구에 나타났다는 주장은 허구가 되고 만다. 200억 년과 6,000년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00억 년을 경부고속도로의 길이인 450km라고 가정하면 6,000년은 약 13.5cm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창조와 진화 논쟁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대략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진화론의 마술봉은 시간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시간을 벌리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진화 논쟁에서 연대의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만약에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가 짧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진화론은 거짓임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짧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지구 및 우주의 연대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다. 성경은 6일 동안에 온 세상과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여기의 ‘하루’(day)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하루, 즉 24시간의 하루라고 이야기한다(출20:9-11). 창세기 5장과 10장을 보면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생애의 기간과 그들 이후의 기록들의 연대를 모두 더하면 지구와 우주의 연대는 6,000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과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한결같이 창세기의 6일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의 24시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그분이 뜻하신 바라는 것을 믿으면 문제가 간단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금방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근거한 과학적인 연대기는 다음과 같다(29쪽의 ‘인류 역사 타임라인’ 참조 바람).

- (a)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우주와 지구와 온 창조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특별하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 (b)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노아가 등장한다.
- (c)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 (d)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등장한다.
- (e)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지구의 생성 연대가 짧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

A. 지구의 자기장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지난 1세기 동안 잘 측정되어 왔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예외적으로 좋은 기록을 얻었다. 최근의 한 중요한 연구에서 반스(Thomas G. Barnes)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1,400년마다 반으로 줄어들며 지수 함수의

형태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다시 말해 1,400년 전의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의 자기장의 세기의 두 배였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10,000년 전까지 역으로 추산해 보면 그때의 지구는 마치 자석별의 자기장만큼이나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이런 별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같이 들리지는 않는다. 이처럼 현재의 지구 자기장의 반감기를 기초로 해서 지구의 형성 연대를 추정해 보면 지구 나이의 상한은 10,000년 정도로 볼 수 있다.

B. 유성 먼지

근래에 과학자들은 우주로부터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우주 먼지 입자의 양이 거의 일정함을 발견했다. 결국 이러한 먼지 입자들은 지구의 표면에 가라앉아 쌓이게 된다. 피터슨(Hans Petterson)은 먼지 입자의 유입량을 정확히 측정하였고 지구가 연간 약 1,400만 톤의 먼지를 받아들인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구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에는 약 60m정도의 두께를 가진 유성 먼지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먼지 층은 지구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활동 때문에 먼지 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달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이러한 두께의 먼지 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달에서조차도 우주 비행사들은 결코 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약 1mm 두께의 먼지 층만 발견되었다. 한때 아폴로 11호 등을 포함한 많은 우주선들의 비행사들을 보내면서 미국의 항공 우주국은 이들이 달 표면에 발을 대고 내릴 때 흙사라도 유성 먼지 층에 잠기거나 앉을까 하는 공포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착륙선의 다리 밑부분을 먼지에 빠지지 않게 넓게 설계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달의 먼지 층 역시 달의 생성 연대가 매우 짧음을 입증한다.

C.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하 저장 장소에서 비교적 침투성이 없는 ‘덮개 암석’(cap rock)에 의해 고압이 유지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 저장고의 압력은 매우 높다. 덮개 암석의 침투성 측정을 근거로 하여 계산을 해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압력이 이런 상태로 만 년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고압의 화석 연료가 수백만 년 동안 덮개 암석으로부터 새어 나가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석유와 천연 가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 식물이나 다른 물질들이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석유나 천연가스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근의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주었을 때 식물로부터 나온 물질이 고급의 석유로 바뀌는 데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적당한 조건하에서 목재와 그 외 섬유소 물질들은 단지 서너 시간 안에 석탄이나 석탄류의

물질로 바뀐다. 따라서 이 실험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형성을 위해 균일론적 지질학자들이 가정하고 가르쳤던 것과 같이 반드시 수백만 년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D.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중력, 저항력과 다른 원인들로 인해 점차 느려지고 있다. 균일론을 믿는 지질학자들이 고집하는 대로, 만일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며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정하게 감속되었다면 현재 지구의 자전 속도는 “0”이 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만일 수십억 년을 거슬러 계산해 보면 그때에는 원심력이 매우 컸을 것이고 따라서 모든 대륙은 다 적도 지역으로 이동했어야만 했을 것이며 지구의 전체 형태는 얇은 판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구의 모양은 구형이다. 지구 내의 대륙들은 적도 지방으로만 모여 있지도 않으며 또 지구는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적도에서 시간당 약 1,600km의 속도로 계속해서 돌고 있다. 분명한 결론은 지구의 연대가 결코 수십억 년이 아니라는 것이다.

E. 달의 퇴행

지구로부터 달이 퇴행한다는 사실은 지구와 달의 형성 연대가 비교적 짧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간단한 증거이다. 현재 달의 퇴행률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지구와 달의 형성 연대가 그리 길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해야 할 기본적 문제는 현재 달이 지구에 너무 밀접해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달의 퇴행 속도와 진화론자들이 40억 년에서 50억 년 정도로 가정하고 있는 지구의 형성 연대를 사용하여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달은 현재 위치보다 지구로부터 훨씬 더 멀리 있어야만 한다. 지구와 달은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의 가정처럼 그렇게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 즉 50억 년이니 200억 년이니 하는 긴 시간은 분명히 신화 속에나 나오는 것이며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F. 대기 중의 헬륨

지구의 형성 연대가 짧음을 잘 입증해 주는 또 다른 예는 대기 중에 있는 헬륨의 양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헬륨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어떤 원소보다도 질량이 작기 때문에 매우 가벼운 기체이다. 대기 중에서 발견되는 헬륨은 측정이 가능하다. 대기 총량과 대기 중 헬륨 비율에 근거해서 대기 중 헬륨 원자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진화론자들은 헬륨을 생산하는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능 감소 현상이 지각 내에서 지난 수십억 년간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이 같은 현상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면 지구의 대기는 현재 대기의 헬륨 농도(200,000개

중 1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헬륨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처럼 많이 있어야만 하는 헬륨의 부재 현상에 대해 그들은 일반적으로 헬륨이 외기권을 통해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을 지지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며 더욱이 최근의 자료를 보면 헬륨은 수소처럼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진화론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것은 실제로 태양의 코로나로 인해 헬륨이 지구의 바깥 공간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수치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보면 자연적 알파선 감소 현상이 현재 관측되고 있는 대기 중 헬륨 조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10,000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G. 미시시피강의 삼각주

미시시피강의 삼각주는 ‘지구의 형성 연대가 매우 짧다’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미시시피강에 의해 약 3억 세제곱미터 정도의 퇴적물이 멕시코만으로 퇴적되고 있다. 미시시피강의 삼각주의 퇴적물 증가 체적과 증가율을 세밀히 연구해서 삼각주의 총무게를 매년 쌓이는 퇴적물의 무게로 나누어 보면 삼각주의 나이는 약 4,000년 정도로 계산된다. 노아의 대홍수가 지금부터 약 4,400년 전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 퇴적된 양이 성경의 연대를 확고히 지지하지 않는가?

H. 혜성

혜성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태양계와 거의 같은 연대를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혜성들은 태양 주위의 궤도를 한 번씩 돌 때마다 전체 질량의 일부분이 불타서 사라지게 된다. 신중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짧은 주기를 갖고 있는 혜성들의 경우 이러한 질량 감소 현상으로 인해 약 10,000년 안에 혜성들 자체가 완전히 소멸됨을 밝혀냈다. 혜성들이 저절로 형성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수많은 혜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태양계의 형성 연대가 10,000년 이상 될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태양계의 형성 연대가 매우 짧음을 보여 주는 이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I. 성단

성단(星團) 역시 우주의 형성 연대가 짧음을 보여 준다. 성단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움직이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별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뭉쳐 있는데 어떤 성단에서는 그 내부의 별들이 매우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 동안은 계속해서 뭉쳐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우주에 성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주의 형성 연대가 수천 년 정도뿐이 안 됐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예들은 지구와 태양계의 형성 연대가 비교적 짧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많은 현상 중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예를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것만으로도 지구와 태양계의 형성 연대가 성경의 창조 연대와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람은 증거에 의해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편견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확실한 진술로 보여 주셨다. 그곳은 영원한 불구덩이요, 유향불이 타는 곳이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벌레들이 무수히 그들을 갉아먹어도 그들의 몸이 소멸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사실을 증언하시고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증언을 직접 소개하셨다. 그 부자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갔으며 거기서 너무나 뜨거워서 애타게 물 한 방울 얻기를 갈망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러한 처참한 사실을 깨달은 그는 비록 자기는 늦었지만 자기 집에 아직 남아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지옥이 있으니 제발 그들이 믿고 회개함으로 거기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에게 대답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기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지옥의 실상을 증언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증언하는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집에는 보스턴 테리어 종류의 개가 하나 있다. 나와 내 아내와 딸들은 그 개의 눈과 털과 발바닥과 혀와 이빨을 보면서 감동에 빠진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사람이 이런 것을 제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기이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시139:14).

지구의 독특함

창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창조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복잡한 설계는 주의 깊고 지적이며 숙련된 설계자를 필요로 하며 모든 조직은 조직체의 주관자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며 간단한 논리이다.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했을 때 바위 사이에 놓인 아주 섬세한 컴퓨터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그 컴퓨터가 공간 속에서 생겨난 바위들과 운석들의 우연한 충돌을 통해 또는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 진화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일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지적 창조자에 의해 세심하게 고안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논리적일까? 일반적 상식대로라면 물론 후자의 설명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주스를 만드는 믹서 그 자체가 달착륙선 아폴로 16호로 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것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분별없고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분자의 우연한 조합을 통해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져서 우연히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이 분별없고 불합리한 일은 아닐까? 물론 온 우주와 태양계가 하나님에 의해 고안되었다는 증거는 그것들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 조합되었다는 그 어떤 가능성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주의 깊고 특별하게 고안된 태양계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려 한다.

1.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매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로써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적당한 열량을 정확하게 받는다. 우리의 태양계 내의 다른 유성들은 태양에서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생명체들이 살 수 없다.
2. 지구의 회전 속도에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생명체들은 살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지구가 현재 속도의 1/10로 회전한다면 모든 식물이 밤에는 얼어 버릴 것이고 낮에는 바삭바삭 타 버릴 것이다.
3. 지구가 거의 원형 궤도를 따라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적당한 한계 내에서 유지된다.
4. 극한 온도는 대기권 안에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에 의해 온화하게 만들어진다.
5. 지구로부터 약 384,000km 정도 떨어진 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은 지구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바다의 조류를 일으킨다. 만약 달이 지구에서 현재 거리의 1/5 되는 위치에 있게 되면 대륙은 하루에 두 번씩 완전히 바다에 잠길 것이다.
6. 지구 지각의 두께와 바다의 깊이는 정교하게 고안되어 있다. 만일 지각의 두께가 증가하거나 바다의 깊이가 단지 몇 미터 정도 더 깊어진다면 자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이 갑작스럽게 변해서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7. 지구의 축은 궤도 평면에 대한 수직축으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다. 이 같은 경사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과 더불어 먹이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킨다.
8. 지구의 대기권(오존층)은 무서운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데 만일 이것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9. 지구의 대기권은 날마다 초당 50km의 속도로 들어오는 약 2,000만 개의 운석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이같이 중요한 방패가 없다면 인류에 대한 위협이 무한대가 될 것이다.
10. 지구는 아주 완전한 물리적 크기와 질량을 갖고 있으므로 대기 압력과 중력, 즉 물과 대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힘 사이에 세심한 균형이 유지되어 생명체가 존속할 수 있다.
11. 지구의 대기권을 이루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은 질소(78%)와 산소(21%)이다. 이 두 물질 사이의 기묘한 조성비는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12. 지구의 자기장은 해로운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보호막으로서 작용한다.
13. 지구는 필수적인 물리적 성질을 다 갖고 있으며 특히 생명체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축복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세심히 고안되고 창조되었다는 개념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형태의 예들을 얼마든지 많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섬세한 생명체들에게 꼭 필요한 상호 의존적 조건들과 요소들이 완전하고 복잡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일들을 위해 누군가가 치밀하게 지적이고 목적으로 가득한 설계를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토록 복잡하고 균형을 갖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단지 우연에 의해 생겼다고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태양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종류들의 영원성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들 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식물과 동물 화석들을 그것들이 진화하여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들의 현대판 후손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한 것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갑각류 어족인 링굴라(Lingula)와 불가사리, 바퀴벌레, 박테리아 등은 각각 2.5억 년, 5억 년, 6억 년 전에 살았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의 조상들과 비교할 때 아무런 차이도 없다. 다윈은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의 말은 지금까지도 진리이다.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했다는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한 종이 다른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Darwin, Francis, ed., The Life and Letters of Charles Darwin, Vol. 1, p. 210).

진화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화석의 기록이 ‘종류에 따른 재생’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체가 지속적인 흐름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는 진화론에 통렬한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시각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한다.

창세기 1장 11-12절: 식물이 종류대로 창조됨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나무를 내니라...

창세기 1장 21절: 바다의 생물들과 날짐승들이 종류대로 창조됨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25절: 땅의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됨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에는 진화론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진리가 들어 있다. 그들은 고래와 같은 포유동물이 육지에서 살다가 바다로 들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고래들도 그때에 창조하셨다고 한다.

한편 사람의 타락 이후로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날짐승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그것들의 종류들이’ 등장한다.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창7:13-14)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처럼 치밀한 분이시다.

‘그것의 종류대로’(after his kind)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단지 화석의 기록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적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노련한 품종 개량사와 유전 공학자들은 종의 안정성이 그야말로 뛰어난 특성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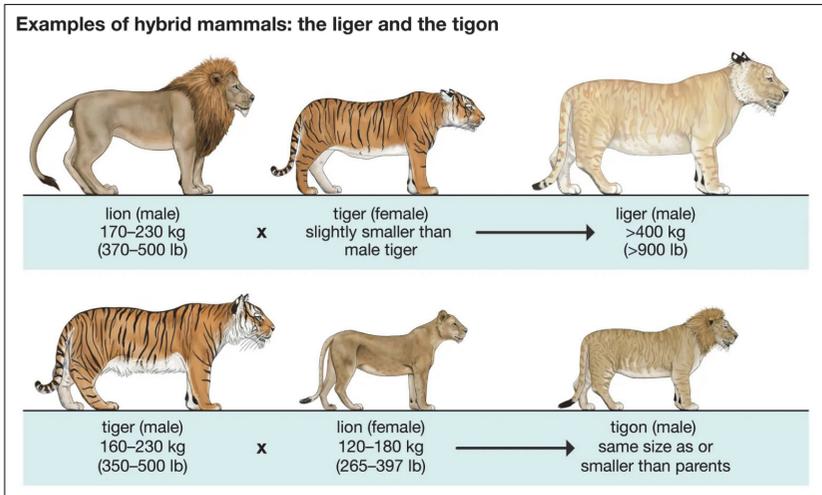
물론 특별한 유기체만을 위한 DNA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종 안에서의 수평적 형질 전환’(때때로 미시적 진화로 불림)은 가능하며, 이것은 여러 가지 품종 개량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개가 넘는 다양한 개가 있다. 또한 자연적 변이에 의해 1,500개의 다양한 산사나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다윈이 목격한 다양한 피리새 역시 이러한 수평적 형질 전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인류도 다양한 인종으로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민13:28-33; 신2:10-11, 21)의 키가 2.7m나 되는 거인 아낙 자손들(Anakim)과 현재 중앙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키가 겨우 1.2m밖에 안 되는 피그미족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

그러나 하나의 유기체 종류가 완전히 새로운 유기체로 변하는 ‘수직적 형질 전환’(거시적 진화로 불림)은 불가능하며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개는 결코 말로 변할 수 없으며, 산사나무는 장미가 될 수 없고, 피리새는 다른 특성을 갖는 피리새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여러 세기에 걸친 품종 개량 실험은 유기체 진화론에 대항하여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종 사이의 경계는 매우 실제적이며 끊을 수 없는 생물학적 사실이다. 또한 비정상적 교배가 시도될 때에는 언제나 번식 불능의 결과가 뒤따른다.

말 + 당나귀 ⇒ 불임 노새

얼룩말 + 말 ⇒ 불임 지브론키(Zebronkey)

사자 + 호랑이 ⇒ 불임 라이거(Liger)



사자와 호랑이의 결합으로 라이거나 타이곤이 나오는데 대다수는 불임이다

이렇게 태어난 잡종들이 모두 다 어김없이 불임성을 갖게 되어 번식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적 용어인 ‘종류’(kind)가, 비록 어떤 사람들이 ‘종류’와 동식물의 ‘과’(family)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린네의 임의적 동식물 분류계와 어떤 직접적인 상호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기쉬 박사는 성경적 용어인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종류란 보편적 특성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상이한 유전자들을 소유한 유기체 집단이며, 일반적으로 평범한 환경하에서 다른 집단과는 상호 교접하지 않는다(Duane T. Gish and Richard B. Bliss, Summary of Scientific Evidence for Creation, Impact No. 95,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California, May 1981,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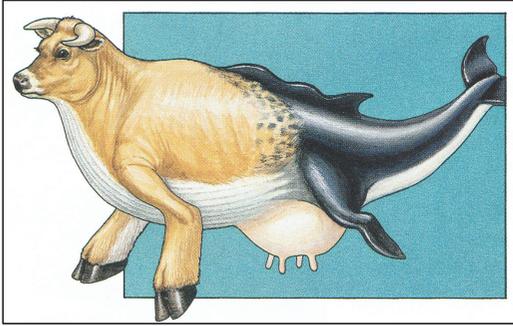
종류들의 영원성에 대한 마지막 예는 초파리에 대한 것이다. 초파리는 실험실에서 방사능 충격을 계속해서 받음으로 쉽게 1,000세대가 넘게 번식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어떤 종류의 발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 기형 초파리를 생산해 내기는 했지만, 결코 어떠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 즉 진화론에 따른 새로운 생명 형태도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그것들은 여전히 초파리였을 뿐이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찰된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적 기록을 확인해 줌을 깨닫는다. 창조된 생명체들은 다른 종류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종류대로만 번식하였다. 영원히 고정된 종류(창1:11, 12, 21, 24, 28) 안에서 허락된 제한적 변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법칙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8-39절에서도 또한 확인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과도기 형태의 부재

이제부터 우리는 아마도 진화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과도기 형태의 완벽한 부재 현상에 대해 논하려 한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만일 생명체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흐름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면, 각 종류가 뚜렷이 많은 만큼이나 그 수가 많은, 서로 다른 형태들 간의 중간/과도기 단계를 담고 있는 화석이 많이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화석에서도 ‘속’(major groups) 이나 ‘문’(phyla) 사이의 과도기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생명체들은 오늘날과 똑같이 선명하게 구별되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화석의 기록에 보존된 촘촘한 단계적 변화의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며, 대신에 늘 그 안에서 거대한 간격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유기체 진화 이론에 치명적인 것이다. 심지어 뛰어난 진화론 수호자였던 다윈 자신도 이 같은 치명적 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과도기 형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지구의 지각 안에서 이들이 묻혀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모든 자연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정돈된 종류들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혼란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지질학 연구는 이 이론에 필요한 변화 즉 과거와 현재 사이에 무한정으로 많이 있어야 할 단계적 변화를 보여 주지 않는다. 참으로 이 사실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많은 반론 중 가장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 중간 단계의 부재는 지질학적 기록이 극도로 불완전하다는 데에 있다(Charles Darwin, The Origin of Species, Vol. 2, 6th ed., p. 49).



진화론에 따르면 고래가 소 같은 포유동물에서 진화하든지 혹은 소가 고래에서 진화해야 한다. 이라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다.

비록 다윈이 이같이 과도기 중간 단계들이 없음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꼈을 정도로 정직하기는 했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화석 기록의 불완전한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희망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이 중간 연결 고리들이 발견될 것이고 진화론에 치명타를 입힌 시간상의 간격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변명들은 사실상 진화론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피난처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네빌(George Neville)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화석 증거의 빈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화석은 이제 거의 다루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발견되었고, 발견된 화석들을 종합해 보기도 전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화석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화석의 기록은 그 안에 여전히 많은 시간상의 간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코 연속적이지 않다(George T. Neville, *Fossils in Evolutionary Perspective*, Science Progress, Vol. 48, January 1960, pp. 1, 3).

스웨덴 룬트 대학의 닐슨(N. Heribert-Nilsson) 교수는 40년이 넘게 진화론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해 왔고, 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 연결 고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실 화석학에 근거한 사실들을 떠나서 진화론의 그림을 그린다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화석들은 현재 매우 완벽하므로 과도기 형태의 부재 원인이 화석의 수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형태의 부재는 사실이며 화석들은 결코 그런 간격을 채워 주지 못할 것이다(Hitching, Francis, "Was Darwin Wrong?," Life Magazine, Vol. 5, No. 4, April 1982, pp. 48-52).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윈의 시대가 지나간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보다 더 적은 수의 '과도기 중간 형태'가 남아 있을 뿐이다. 다윈이 희망한 대로 보다 많은 수의 과도기 중간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적은 수의 형태만이 남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예전의 몇몇 고전적 진화론 사례들 - 예를 들어 시조새 등과 같은 사례 - 이 오늘날에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으로 인해 버림을 받거나 무시될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과도기 형태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의 겁 없는 믿음은 더욱더 완강하다. 룬(A. Lunn)은 언젠가 이러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풍자의 글을 썼다.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화석에 대한 실상이요, 볼 수 없는 중간 연결 고리에 대한 증거이다(Shute, E., *Flaws in the Theory of Evolution*, Craig Press, Nutley, New Jersey, 1961, p. 204).

잘 발달되고 확고히 정립된 생물 분류학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명체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극소한 돌연변이 같은 변화를 통해 변화한다는 진화론적 모델의 근본적 가정을 잠시 생각해 보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생물의 분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만다. 그러나 살아 있는 유기체들이 잘 구별되며 서로 분리된 범주 안에서 쉽게 분류된다는 사실은 창조 모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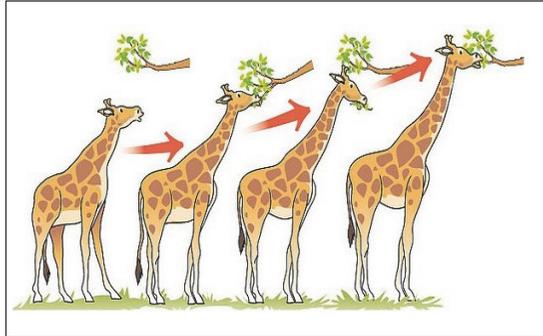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던 것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진화론의 모순 이론

진화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명체들의 진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과정이 제안되기는 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유기체 진화에 대한 만족스러운 구조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네 가지 주요한 진화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라마르크의 진화설

‘획득된 형질의 유전 이론’(용불용설)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라마르크(Jean Baptiste de Lamarck, 1744-1829)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유기체 진화에 관한 최초의 체계화된 이론이었다. 이 이론의 기본 전제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기관은 점점 발달하고 동시에 쓰지 않는 것은 점점 퇴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얻게 되는 특성들은 결국 새로운 종으로 진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대로 계승된다는 것이다. 라마르크는 기린의 긴 목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발달되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그는 기린이 나무의 잎사귀들을 먹으며 지속적으로 목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들을 먹으려는 과정을 통해 기린의 목이 가늘고 길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믿은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유전으로 계승받은 후손들 역시 스스로 이것들을 개선하여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 그런 특성을 갖는 후손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변화는 오직 유전자의 변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DNA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가 발견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이론은 거부를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획득한 특성의 계승 이론’(용불용설)은 과학계 전체에 의해 자연스레 버림을 받게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

이것은 1859년에 다윈(Charles Darwin)에 의해 체계화된 진화론의 구조이다. ‘자연 선택설’(Theory of natural selection)로 알려진 이 이론은 적자생존의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다윈은 어떤 생명체가 먹이와 물과 집 등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 계속되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했다. 그는 생명체들 가운데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므로 보다 우수한 특성을 지닌 것만이 잘 싸우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자손을 만든다고 추론했다.

다윈은 기린의 긴 목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더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음식물 얻기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들과 비슷한 자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더 이상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구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자연적 선택은 적자의 생존을 설명하는 것이지 결코 적자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윈의 저서인 「종의 기원」 등에는 무려 800번이 넘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돌연변이 이론

이것은 1901년에 드브리스(Hugo de Vries)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1866년에 유전학자 멘델(Gregor Mendel)이 진행한 연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완두콩 꽃을 사용한 멘델의 역사적 실험은 다윈의 진화론의 근본적 오류를 드러내 주었다. 원래

빨간색과 흰색의 꽃을 내는 모(母)식물을 교배해서 생긴 제2대 빨간색 꽃식물을 이종 교배했을 때, 멘델은 빨간색 꽃 뿐 아니라 하얀색 꽃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윈은 모식물이 하얀 특성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하얀색 꽃이 생긴 것은 진화론에 따른 새로운 발전/진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멘델은 이러한 특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사실 그것은 모식물의 세대 안에서 우성의 유전자(빨간색)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추어진 채 열성의 성질(흰색)로 항상 존재했던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을 직시하고 그에 따라 주장하는 바를 적당히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주 편리하게도 유전자가 돌연변이의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설이 제안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종은 유익을 끼치는 돌연변이(DNA 교체의 기회)의 결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정 역시 유기체의 진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구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다윈주의

사실 현대 진화론들은 다윈의 사고를 수정하고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신다윈주의라 불린다. 이러한 형태의 과정을 제안하는 현대 과학자들은 유기체의 진화가 자연 선택(다윈주의), 돌연변이 그리고 지질학적 연대 등의 종합적 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신다윈주의자들은 돌연변이라는 과정이 진화에 필요한 잡종들을 제공하며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 자연 자체가 자기의 뜻대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 하나만으로는 자기들이 가정하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비록 이것이 가장 최근의 진화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아주 기본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럴듯한 진화의 구조로는 부적격하다.

예를 들어, 만일 돌연변이가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정말로 필요했다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생명체의 생존 능력을 증대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돌연변이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불행한 생명체에게 비록 치명적이지는 않다 해도, 거의 대부분(99.99%)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돌연변이는 더 약하고 살아가기에 불리한 생명체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돌연변이에 의해 생긴 존재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진화론의 가정과 희망적 기대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또한 돌연변이는 기린의 긴 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목 길이의 작은 차이는 음식의 차이나 혹은 목의 길이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우성 유전자 수의 변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돌연변이의 99.99%가 해롭고 매우 드물며 완전히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다윈주의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질학적 연대와 자연 선택에 의해 다 해결된다는 ‘초특급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진화에 의해 만물이 형성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풍부하고도 알맞은 돌연변이들이 생산되고 선택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믿는다. 비록 우연의 과정들에 의해 어떤 것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에 의해 창조된 것의 대부분이 순간적으로 소멸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연한 과정에 의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객관적 확률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과 시간의 구조를 조합한 신다윈주의는 진화론자들이 가정하는 생명의 진화 과정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돌연변이는 항상 이전보다 덜 적합한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자연 선택은 적합하지 못한 생명체를 파괴한다. 시간은 죽음과 붕괴만 가져온다.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진화의 구조는 어떠한 긍정적인 것도 낳을 수 없는 삼중 부정 구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진화론자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근거나 혹은 설명도 없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람이 믿는 비과학적인 상상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골라 그들의 마음을 멀게 한 것은 참으로 사실이 아닌가?(고후4:4)

생물 발생설

진화의 현대적 개념은 16세기 과학자들이 주장한 자연 발생설, 즉 죽어서 부패한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자연히 생겨났다는 이론이 세련되게 단장되어 복귀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 발생설의 지지자들은 피상적인 관찰을 통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 즉 바나나 껍질에서 과일 파리가 나오고 거름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죽은 송아지에서 벌이 나왔다는 것 등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자연 발생설은 레디, 스팔란자니, 파스퇴르 등과 같은 생물학자들의 신중한 연구에 의해 논박되었다. 이들은 피상적 현상을 넘어선 아주 조심스러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어떤 물질이 미리 살균되어 가능한 생물학적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생명체도 발생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자연 발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오직 먼저 존재하는 생명체로부터만 나오며, 오직 자신의 종류만을 영원토록 존속시킬 것이다.

진화론자들을 당혹케 만들 정도의 복잡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질서 있는 생명체들이 보여 주는 놀라울 정도의 완벽함은 생명체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설명/해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놀랍도록 정밀한 이주 능력과 그 밖의 다른 본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화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물학의 일관되고 압도적인 증거는 성경적 창조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신화와 동화와 같은 진화론을 확실하게 논박하고 있다. 한때 다윈은 자신의 신학이 ‘단순한 혼란’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인한 적이 있다. 이제는 이 같은 그의 진술이 그의 생물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이 아주 확실해졌다.

인류학의 허구

진화론자들은 지금부터 약 3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전에 사람과 유인원 모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공통의 선조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믿는다. 이러한 주장을 떠받들기 위해 그들은 화석화된 많은 뼈와 치아 등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창조론자들은 사람은 단지 수천 년 전에 - 좀 더 정확하게는 약 6,000년 전에 - 초자연적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창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창1; 고전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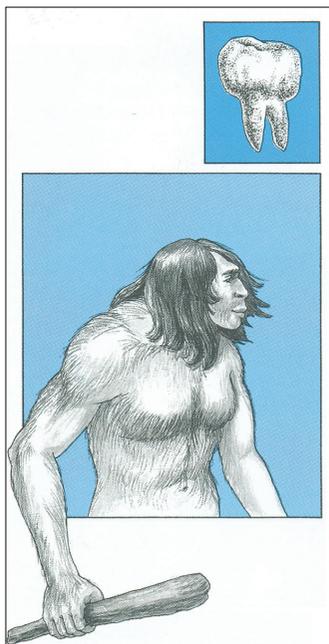
전 세계의 여러 박물관을 가 보면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사람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인상적인 진열물이 많이 있다. 사실 이러한 전시품이 아주 적은 양의 조각 증거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화석 전시회를 가보면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진화가 아주 정립이 잘된 확고한 사실로 소개하고 있다.

사람과 유인원 사이의 중간 연결 고리로 불리는 ‘원인’(ape-men)은 그 화석이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어 왔으며 그 예로는 ‘네브래스카인’, ‘자바인’, ‘북경 원인’ 등이 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진화에 대한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화석 원인’(fossil ape-man)이라 불리는 것들 가운데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네브래스카인

네브래스카인은 1922년에 미국 중서부의 네브래스카주의 제3기 최신세 지층 속에서 쿡(Harold Cook)에 의해 발견된 화석 유물이다. 진화론자들은 이 유물이 백만 년 전에 산 사람과 유인원 사이의 ‘잃어버린 중간 연결 고리’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 그 결과 이 유물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화론자들이 네브래스카인의 정체를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란 무엇이었던 말인가? 그들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한 개의 이빨이었다. 실로 그들은 단 한 개의 이빨만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한 개의 이빨을 조사했고, 그 뒤에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던 선사 시대의 종족에 대한 긍정적 증거라는 평을 내렸다. 이것은 소위 세계의 최우수 과학자라 불리던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 낸 비극적 사실을 보여 주는 극명한 예인 것이다.



네브래스카인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첫째 이빨이 나왔던 동물의 전체 뼈대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진화론자들로 하여금 네브래스카인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일에 주춧돌 역할을 했던 그 이빨이 멸종된 어떤 돼지 종류의 이빨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권위자들’은 자기들의 상상력을 무한정으로 동원하여 돼지의 이빨로부터 인류의 조상을 창조해 냈던 것이다! 소위 지식층이라 불리는 과학계 전체가 인류의 조상에 대해 이처럼 주목할 만한 주석을 내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그런데 과연 이런 사실이 진화론 과학자들을 당혹케 했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발견된 모순은 공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자바 원인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자바 원인, 즉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Pithecanthropus erectus, 직립 원인)이다. 자바 원인은 열성적 진화론자였던 두보이(Eugene Dubois) 박사가 1891년에 발견한 것이다. 두보이 박사가 발견한 것은 두개골 윗부분의 작은 조각과 왼쪽 대퇴골의 한 부분 그리고 어금니 등 모두 세 개였다. 이 증거들은 확실히 이전의 다른 어떤



자바 원인

증거보다 실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체의 매우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 유물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아니고 약 20m 반경의 범위 안에서 수집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증거들이 동시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약 1년간의 기간을 통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유물들이 멸종된 다른 동물들의 뼈들이 묻혀 있는 오래된 강의 배사 구조 안에 함께 묻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자바 원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자바 원인이 지금부터 약 75만 년 전에 산,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연결 고리라고 조심스레 확신하고 있다. 이 ‘과학 전문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몇몇 조각이 선사 시대 인류의 전체적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준다고 믿게 하려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개의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도대체 그렇게 빈약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전체를 완전하게 재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전문가들은 도대체 그 모든 조각이 같은 동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한단 말인가? 도대체 화석화되지도 않은 이 뼈조각들이 흩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말인가?

이것을 발견한 두보이 박사마저도 나중에는 자신의 학설을 수정했다. 그는 그 뼈들이 긴팔원숭이에게 속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 가운데 박물관 전시회를 찾아보거나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자바 원인이라는 증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전시회나 교과서들이 한결같이 너무 독단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진화했다는 주장을 펼 때와 비슷하게 진화론자들은 자바 원인 역시 이미 잘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선전하고 다님으로써 이 유물에 대한 매우 의심스러운 본질을 숨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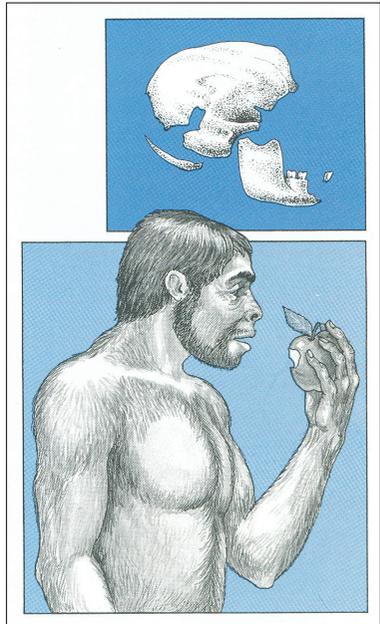
필트다운인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필트다운인의 유적은 1912년에 아마추어 화석 연구가 도우슨(Charles Dawson)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몇 개의 뿔조각과 이빨 및 원시 도구 몇 점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자신이 그것들을 영국 남부의 서식스주 필트다운(Piltdown, Sussex, England)에 있는 자갈 단지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유물들을 영국 박물관의 저명한 화석학자였던 우드워드 박사에게 들고 갔다.

늘 그러했듯이 인류학자들은 곧바로 이 유물들이 지금부터 약 50만 년 전의 것으로 인정해 버렸다. 여러 박물관과 책의 선전을 통해 그 유물이 역사상 아주 위대한 발견인 ‘필트다운인’(Piltdown Man)으로 알려지자 이 유물에 대해 수많은 문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필트다운인을 주제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다. 확실히 이번의 발견은 시간의 시험을 다 견디어 내고 진화론을 확고히 증명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사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까?

1956년 10월, 도우슨이 발견한 것이 거짓으로 들들날 때까지 모든 것은 참으로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대중 과학」(*Popular Science*)이라는 월간지에서 발췌한 ‘놀라운 필트다운 사기극」(*The Great Piltdown Hoax*)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렸다. 불소 흡수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그 뼈들의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필트다운인의 뼈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 나고 말았다. 더욱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필트다운인의 턱뼈는 그 유물이 발견되기 겨우 5년 전에 죽은 원숭이의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실 필트다운인의 진짜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은 그 이빨들을



필트다운인

줄로 다듬었고 뼈와 이빨은 다 칼륨의 이염화 물로 변색해 버렸다. 따라서 필트다운인은 속임수에 기초한 완전 사기극이었으며 그것을 확실하게 지지했던 모든 ‘과학 전문가들’은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보우덴에 의하면, 필트다운에서 그 유물들이 들어 있던 구덩이 속에 가짜 화석을 집어넣은 장본인은 샤르탱이라고 한다. 사실 샤르탱이라는 인물은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을 조화시키기 위해 몇 권의 철학 서적을 저술한 바 있는 열렬한 진화론자였다. 그러나 자기가 신봉하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는 심히 분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잃어버린 중간 연결 고리를 스스로 구성함으로써 진화론을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런 사기극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같이 사기극으로 이루어진 필트다운인이 마치 확고한 과학적 사실로서 지난 수십 년간 주요 교과서들에 실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주립/국립 박물관들에서 진화의 증거로 전시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은 20세기 초에 독일 뒤셀도르프 근처 네안데르탈 계곡에 있는 동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존재이다. 이것은 반직립인으로 원통형 가슴을 갖고 있으며 아주 잔인한 존재로 사람과 원숭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연결 고리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나 다른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을 발견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는 완전한 직립 보행인이었고 더욱이 완전한 인간이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그의 두개골 용적은 현대인의 두개골 용적보다 무려 13%나 더 컸다. 진화론자들은 두개골의 용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진화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보다 더 많이 진화한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그릇된 개념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겨났다. 첫째 요인은 네안데르탈인을 재구성한 인류학자들이 이미 진화론에 의해 세뇌를 당했다는 점이다. 둘째 요인은 처음에 평가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관절염과 구루병(곱사등)에 걸려 다리를 저는 사람의 뼈였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조차도 네안데르탈인을 완전한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

공통적으로 인용되는 진화의 증거들 반박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이론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진화의 증거라는 것들을 종종 제시하며 이런 예들이 생물체의 진화를 확실히 증명해 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예들은 진화론을 지지해 주는 통합 작용/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예로서 아주 강력하게 제시되곤 한다. 이제 우리는 이미 교과서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유명한 진화의 증거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흔적 기관

흔적 기관이란 처음에는 완전히 발달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으나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진화론자들이 가정하는 동물의 구조/기관을 말한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구조들이 이전에 있었던 진화의 변화를 나타내 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랫동안 진화의 증거로 인용해 왔다. 그러나 금방 알게 되겠지만 흔적 기관 역시 진화론자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미리 설치서 자기들을 곤경에 밀어 넣은 또 다른 좋은 예에 속한다.

사실 생리학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진화론자들이 쓸모없다고 가정한 흔적 기관들이 실제로는 아주 유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예를 들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교과서들이 갑상선과 뇌하수체를 포함한 약 200가지 이상의 신체 기관들을 흔적 기관으로 목록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과 구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가 증가해 감에 따라 그들이 쓸모없다고 판정한 구조와 기관의 목록이 오늘날에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에 흔적 기관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기관/구조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다. 또한 흔적 기관에 대한 논쟁 속에 들어 있는 치명적 결점이 최근의 유전학에 의해 노출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흔적 기관이라는 개념은 구조/기관의 발달과 상실이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라마르크의 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관 및 구조 등은 염색체 혹은 DNA 내의 유전자 변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기관/구조가 현재 사용되고 있느냐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코 후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흔적 기관이라는 개념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 개념은 여전히 진화론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흔적 기관이란 반드시 어떤 구조나 기관이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쁜 것으로 퇴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창조물이 기능을 잘 갖춘 단위가 되기 위해 초기 발생 조직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런 조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은 생물체 진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논제로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흔적 기관이라는 개념은 결코 생물학적으로 변호할 수 없는 개념이며 옛날에 진화론자들이 과학적 사실들을 일시적으로 덮어 버리기 위해 상상 속에서 꾸며 낸 그릇된 개념이다.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개념을 완전히 내다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점나방

일반적으로 현대 신다윈주의 지지자들은 진화를 증명하는 놀라운 예로 영국의 점나방 사례를 인용한다. 점나방은 항상 밝은색, 중간색 그리고 어두운색을 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나무의 줄기들이 밝은색이었기 때문에 밝은색의 나방들이 자기 몸을 잘 위장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어두운색의 나방들은 쉽게 발견되어 새들의 먹이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두운색의 나방들은 전체 나방들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대기의 공해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나무줄기 역시 점점 어둡게 되었다. 그로부터 45년 뒤에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시 주변의 점나방들 가운데는 95%가 어두운색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진화를 증명한단 말인가?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과정은 결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내지 않았으며 더욱 복잡하고 조직화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사실 어두운 색깔의 나방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다만 공기의 오염이 단순히 어두운 색깔의 나방들과 밝은 색깔의 나방들의 숫자만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점나방의 경우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나방들 안에 발생한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며 단지 자연 선택의 원리를 설명해 줄 뿐이다. 1971년판 「종의 기원」의 서문에서 매튜스(L. Harrison Matthews)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³⁾

점나방 사례는 자연 선택 혹은 적자생존이 실제로 유효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례는 결코 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색깔에 따른 구성 비율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나방들은 처음부터 점나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과서와 백과사전들은 계속해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발전/진보의 예로서 점나방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라면 그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진화를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리너구리

진화론자들은 오리너구리가 포유동물과 조류 사이의 진화를 보여 주는 중간 연결 고리라고 주장한다. 오리너구리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고 있는 짐승으로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포유동물처럼 새끼들에게 젖을 준다. 그런데 새끼 오리너구리는 파충류처럼 알에서 부화하며 오리와 같이 물갈퀴가 있는 다리와 넓적한 부리를 갖고 있다. 또 음식을 씹기 위해 턱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며 뱀의 독 이빨처럼 독이 있는 발톱을 뒷다리에 가지고 있다. 아주 놀랍게도 오리너구리

3) Matthews, L. H., The Origin of Species, (Introduction) by Charles Darwin, J. M. Dent and Sons, Ltd., London, 1971, p. 10.

는 돌고래처럼

처럼



반향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는다.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오리너구리는 모습과 특징에 있어서 조류와 포유류의 특성을 가진 이상한 혼합체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특징들이 이상하게 조합되었다는 사실이 오리너구리가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과도기 동물임을 보여 준단 말인가? 창조론자들은 단순히 오리너구리라는 창조물이 창조적 설계에 의해 모자이크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모습으로 만들어진 짐승이라고 주장한다. 오리너구리의 예가 서로 다른 관점을 지지해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리너구리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부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

1. 오리너구리 화석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오리너구리들과 똑같다.
2. 알과 유선(乳腺)의 복합적 구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것들은 자궁이나 유선의 성장과 기원 등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제공하지 않는다.
3. 알을 낳는 오리너구리보다 포유동물의 특성을 더 많이 지닌 짐승들의 화석이, 진화론자들의 애용물인 지질 주상도에서, 오리너구리가 발견된 지층보다 훨씬 더 낮은 지층에서 발견된다.

진화론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저등한 짐승, 즉 진화가 덜 이루어진 짐승일수록 그 화석이 지질 주상도의 하부 지층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셋째 사실은 이와는 상반되므로, 오리너구리는 복합적 특징을 갖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짐승이며 그 자체로 독특한 형태의 동물이라고 우리는 결론지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오리너구리는 진화의 과도기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의 예술적 기교와 유머 감각을 잘 나타내 주는 멋진 예이다.

시조새

진화론자들은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이 두 계통의 생물체 사이의 과도기 중간 연결 고리로 제안하는 유일한 화석이 바로 저 유명한 시조새 화석이다. 진화론자들은 파충류로부터 조류가 되기까지 약 8,000만 년 정도의 진화 기간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비록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이 두 계통의 생물체 사이의 중간 연결 단계로 단 한 개의 화석만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파충류 선조로부터 나와 ‘비행’(飛行)이라는 놀라운 진화 단계를 거친 수백만/수천만 개의 중간 형태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말인가? 반은 비늘로



그리고 반은 깃털로 이루어져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만 할 조류/파충류 중간 단계 화석 표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말인가? 만일 파충류로부터 조류로 진화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수없이 많은 과도기 형태가 화석의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더욱이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화석학자들은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 100% 확실한 새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조새의 특징이 진짜 새에서는 나타나지만 많은 파충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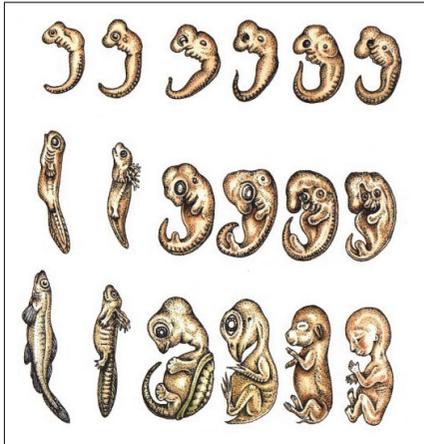
오리너구리가 포유동물과 조류 사이의 중간 연결 고리가 아닌 것처럼 시조새는 결코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연결 고리가 아니다. 파충류로부터 조류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데는 참으로 중요한 난제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폐와 관련이 있다. 파충류의 폐는 수백만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새들의 폐는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충류의 폐에서 조류의 폐로 조금씩 진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반은 관으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진 폐를 소유한 과도기 생물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물 발생 법칙

1866년 헤켈(Ernst Haeckel)은 이른바 ‘속생설의 법칙’ 혹은 ‘생물 발생 법칙’을 발전시켰다. 반복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진 이 개념은 가끔씩 대학교 교재에도 실리곤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상투적 문구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체

발생(ontogeny)은 계통 발생(phylogeny)을 반복한다.” 이것을 풀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태아의 발달, 즉 개체 발생이 진화론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이른바 조직체의 진화론적 발달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속생설의 법칙을 지지하기 위해 진화론자들이 자주 사용하여 잘 알려진 예는 사람의 심장이다. 그들은 사람의 심장이 최종적으로 사람의 심장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벌레, 물고기, 개구리, 그리고 파충류의 단계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의 태아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아가미를 닮은 심장 구조야말로 사람이 물고기로부터 진화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조사들은 이 같은 법칙 안에 많은 착오가 있음을 밝혀 주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자들은 태아의 여러 단계는 단일 세포로부터 훨씬 복잡하고 정돈된 조직체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태아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예외, 역전 현상, 삭제 및 첨가 현상 등이 태아 연구에서 잘 관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분자 유전학이라는 학문은 속생설의 법칙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DNA는 각각의 조직체마다 아주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간단하게 말해, DNA는 결코 지금까지 나온 다른 조직체들의 발전적 단계를 재창조하지 않으며 단지 그 고유의 종류대로 재생산해 내는 일만 한다. 현재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속생설의 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단지 어리석거나 정보에 어두운 진화론자들만이 자신들의 헛된 이론을 방어하기 위해 이 개념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은 아무런 과학적 토대도 지니고 있지 않다.

비교 해부학

비교 해부학이라는 과학은 동물의 물리적 구조를 다루는 학문이다. 진화론자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동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뒤 이것을 생물체 진화의 강력한 증거로 제시한다. 그들은 유사한 구조 - 모양은 같지만 기능은 다를 수도 있는 구조 - 가 동물들이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조론자들 역시 비교 해부학이 보여 주는 대로 설계와 구조에 있어서 동물들 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설명이다. 유사한 구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한 창조자가 친히 계획한 대로 공통의 기본적 청사진에 따른 특별한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 형태는 여러 종류의 조직체가 미리 결정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 청사진 내에서 충분히 변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본적 형태가 여러 종류의 동물의 기능에 완벽하다면, 각 종류마다 다른 형태나 청사진을 만들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다 주관적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의 관점이 더 경험적이다. 그 예로 화석 내의 기록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서로 완연하게 다른 여러 종류의 조직체를 보여 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만일 진화론자들의 설명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동식물에서 그것들의 선조들에까지 이르는 연속적이고도 점진적인 중간 연결 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단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진화론에 의거한 설명/해석을 반박하며 오히려 창조론자의 관점을 지지해 주고 있다. 사실 창조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자연계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사성과 차이점 모두를 다 예측해 낸다.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인본주의 철학을 지지하기 위해 이른바 유사 구조 혹은 상사 구조라 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 그 어려움이란 진화론자들이 어떤 동물의 선조 동물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동일한 유전자들이 현재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개체의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동일하지만 그 구조 자체는 늘 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진화론자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수많은 유사 구조/상사 구조들이 전적으로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백과사전 등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진화의 증거들 - 화석화된 말의 계열, 점나방, 오리너구리, 시조새, 자연 발생 법칙, 밀러와 우레이의 실험, 비교 해부학 - 은 제대로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가정이거나 잘못된 개념들이다. 진화라는 과정은 과거의 화석 기록으로도 증명된 적이 없으며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의심스러운 가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실험적 증거들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모래 위의 발자국

한번은 무신론자인 프랑스 과학자가 아랍인 가이드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인은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잘 모르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바른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런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오?” 그러자 그 아랍인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우리 텐트 옆을 지나간 게 낙타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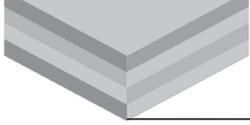
“그야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자 아랍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태양, 달, 별들이 그분의 발자국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 주전 2000년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욘12:7-10).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뽁뽁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욘26:7-8).

한국 창조 과학회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국내에서 창조와 진화 문제를 제기하며 창조에 대해 가장 많은 자료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창조 과학회이다. 한국 창조 과학회 웹사이트¹⁾에서는 진화의 허구와 창조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와 자료가 수도 없이 많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우측 상단의 ‘자료실 맵 바로 가기’로 가면 100가지 분류 이상의 여러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호주 등에도 이와 비슷한 기관들이 있고 특히 켄 햄(Ken Ham)이 운영하는 ‘Answers In Genesis’²⁾는 책, PPT,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성경 신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명현 박사의 창조 과학 유튜브 영상들이 창조와 진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 <https://creation.kr/>

2) <https://answersingenesis.org/>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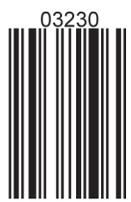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03230

ISBN 978-89-951587-8-4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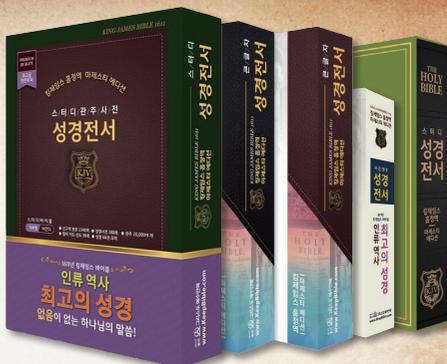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뵘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